

원양산업

제 1129 호

(2021년 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1년도 신년사 4 /
-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 선원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
- 박희섭 성경수산 대표 부경대 장학재단에 5억원 쾌척 /
-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7 /

■ 협회 12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8 /

■ 오징어 요리 만들기

(오징어 된장구이)

6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0년 12월 보고 내용

17 /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거래 거의 없어

2 /

- 중국 Liancheng사, 80일 만에 참치 가공공장 건설 2 /
- 좋지 않은 어획 상황,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자극32 /
- 미국, 대만 강제 노동 연승선 어획물 차단 32 /
- 일본 양식 참다랑어 알 부화 예측 성공 42 /
- 일본 참다랑어 TAC 동결 8 /
- 타이 유니온, 참치 사업 외 타 분야 투자 지속 52 /
- 11월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최고치 62 /
- 참치 대형 눈다랑어 700 엔을 유지 7 /
- IATTC 특별 회의 눈다랑어·황다랑어 현행 관리 조치 17 /
- 참치, 코로나19 전염 방지에 도움 될 수도 82 /

■ 오징어어업 동향

- 신선 오징어 연간 10% 증가한 2만 9,000톤 92 /
- 이시카와 현 오징어 어획량 18% 감소 92 /
- 도요스 시장 신선 오징어 전년 상회, 4,579톤 03 /
- 일본 2021년 어기 살오징어 TAC 동결 13 /
- 중국 원양 선사, 에콰도르에 어업기지 건설 계획 13 /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日 수산청, 동해 북부 명태 관리 2개안 검토 23/

■ 일본 수산 동향

- AI로 정치망어업 어종 등 판별 3/
- 日 기업, “인재 육성”이 사업의 중점, 성장 위한 열심 33/
- 마루하니치로 베트남에 가공 거점 마련 43/
- 일본 2020년 11월 가계 해산물 지출 6% 증가 43/
- 日 2020년 어획량 10% 감소한 15만톤 53/
- 日 잡는 어업 자원 회복과 부가가치화 기대 63/
- 日 확대되는 고령자 음식 시장 5년만에 20% 증가 73/
- 미쓰비시식품, 2021년 트렌드로 지방 시장 확대에 주력 83/
- 日 11월 수산물 수출 냉동 부리 필렛 수량 20% 증가 83/
- 日 11월 수산물 수입 칠레산 은연어 신물 17% 증가 104/
- 내년 2월에 시푸드쇼 오사카 11/

■ 각국 수산 동향

- 미국 농무부, 최신 식생활 지침 발표 24/
- 브렉시트 거래, 스페인의 포클랜드 조업에 막대한 손실 24/
-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2년 연속 1,000억 크로네 이상 34/

- Norebo, 러시아 대규모 남극 크릴 어업 복귀 주도 44/
- 노르웨이 기업, 세계 최대 대구 부화장 건설 계획 44/
- 대구 자원량, 알래스카만 전역에서 회복 54/
- EU 영국 어획 할당액 25% 감소 54/
- 아이슬란드 시샤모 어업 상한 2만톤 이상 64/
- EUROPECHE, 2021년 쿼터 충분하지 않아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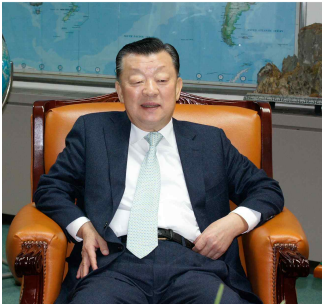
■ 쉬어가는 난 (詩)

- 밤바다 <이해인> 71/

■ 국내 수산 뉴스

- 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84/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시 상향 나서 84/
-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94/
- 2020년 수산물 수출 2조 5천억원, 김은 역대 최고 105/
- 멸치, 꽂치젓갈 널리 알린 김현목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111/
- 김정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총회 의장 연설 115/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1년도 신년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수산인들이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우리 원양어선들이 올해도 무사고로 안전 조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양산업 종사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원양산업은 코로나 위기 속에 어가 하락과 어획 감소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로 코로나 시대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업계는 그동안 선박 검사 문제, 양상 전제 문제 등 코로나19로 인해 불어닥친 각종 현안들을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원양노조 등과 협의, 대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역 강화로 인한 정책 변화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이 어려워지는 등 선원 교대의 어려움은 원양어업의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도 새해에는 한층 강화되어 우리 원양산업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협회장으로서 염려가 앞섭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우리나라 생선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며 해외에 있는 원양 어장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해외 수산 영토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양어업 유지 발전을 위해 우리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새해에 선원 교대 문제 등 제반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원양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각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윤명길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 선원 인권교육 동영상 제작 선원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해 선박에 배포 계획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선원의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존중과 배려, 바다위의 인권’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NGO, 언론을 중심으로 원양어업 어선원 인권 개선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 변화하여 종래의 단순한 자원보호 범주를 넘어 인권 이슈가 어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선원 인권 존중 인식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이 교육영상은 선박 괴롭힘의 정의, 특징, 요인, 종류, 괴롭힘으로 인한 선박 전반적 피해,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원양 선원 교육영상 제작에는 원양어선 승선 경험이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박태선 교수가 참여하였

고 직접 출연하여 선박 괴롭힘 실태 소개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 내부적으로 이 교육 영상에 대한 시연회를 3차례 가지고 세부 내용을 점검, 수정사항 등을 논의했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올해 1월내에 영상이 수록된 USB를 원양선사에 배포하여 선박 괴롭힘 예방 및 방지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박희섭 성경수산 대표 부경대 장학재단에 5억원 쾌척



성경수산(주) 박희섭 대표가 사재 5억원을 후학 장학금과 연구에 써달라며 지난 12월 23일 모교인 부경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박희섭 대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회사(성경수산)를 정리하는 와중에도 후학 양성을 위해 거액을 쾌척했다.

박희섭 대표는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어로학과 68학번으로 1972년에 졸업 후 항해사, 선장 등을

거쳐 1990년에 성경수산을 설립해 50여 년간 원양어업에 종사했다.

박 대표는 1996년에도 부경대에 2억 3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어 총 7억 3천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박희섭 대표는 한 평생 원양어업 외길을 걸어오며 원양어업에 대한 자긍심이 남달랐고, 특히 모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부금이 줄어든 현 세대에서 박 대표의 선행은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인사

◇ 이사 대우 승진 및 전보
해외협력2부 이형균 부장 → 이사 대우
(부산지부장에 임함)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 이사 대우

◇ 부장 대우 승진 및 전보
해외협력1부 진호정 차장 → 부장 대우
(해외협력2부 부장(직무대리)에 임함)
기획총무부 강성현 차장 → 부장 대우
회원지원부 소기동 차장 → 부장 대우

화축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협회 김현태 이사 장남 한얼군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 일시 : 2021년 2월 21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빌라드지디 수서(5층 르씨엘홀)

○ 신랑·신부

— 신랑 · 김현태 기요여이 자나 취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원양어업 단독, 합작, 관련사업체 통계자료 수록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20년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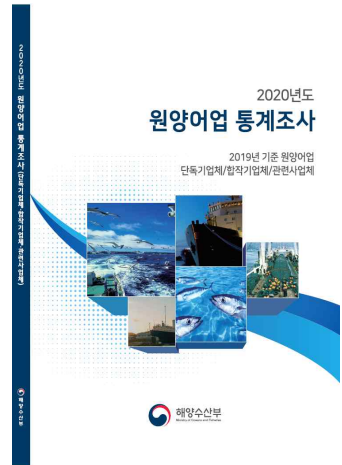
이번 통계연보에는 2019년 기준으로 원양어업의 업체·어선, 생산·수출, 종사자, 재무 현황 등 원양 부문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아울러, 합작기업체의 업체·어선, 생산, 종사자 현황과 관련사업체(해외 유통·가공·양식 등) 진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도 담았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제 조업 기준으로 단독(우리나라 국민 단독)과 합작(외국인과 합작)을 포함한 원양어업 총 규모는 65개사(단독 40개사, 합작 25개사), 253척(205척, 48척)이었으며 생산량은 88만 2,505톤(51만 1,738톤, 37만 767톤)이었다. 2018년에 비교하면 2개사 7척 감소했으나 생산량은 4.1%(3만 4,874톤) 증가했다.

어로원가는 연료비가 22.2%로 가장 높고 선원임금 18.5%, 입어료 12.1%, 판매비 11.4% 순으로 나

타났다.

우리 협회는 회사, 정부 등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위탁받아 실시한 조사로 원양 업계 재무 상태 등 보다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는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ofis.or.kr>) 동향, 통계-원양어업 통계자료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회원사 주소·연락처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선민수산(주)	부산시 중구 구덕로 87-1, 801호 (남포동6가, 하버타워)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48, 403호 (광안동, 은해빌딩)
성경수산(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601호(역삼동)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76, 804호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Tel)02-2183-0033 Fax)02-2183-0030	Tel)051-465-9510 Fax)051-465-9513
(주)현원수산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 707호 (대연동, 세웅빌딩)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48, 402호 (광안동, 은해빌딩)

협회 12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추진
가. '20.12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12.16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5척 19.00억원 원안의결
- 나.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 관련 업무추진
 - 202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최종보고서 송부 및 설명(해수부 원양산업과)
 - 2021년도 원양어업경영자금 소요액 알림(업계, 수협)
- 2020년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심의의결
 -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범운영 관련 심의 ⇒ "가결"
- 2021년 정기총회 관련 주요일정
 - 회장단간담회 : '21.2.4(목) 12:00
 - 제14차 이사회 : '21.2.25(목) 11:00
 - 21년 정기총회 : '21.2.25(목) 14:00
- ※ 단,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 협회 일반회계 총수지 예상분석 업무추진
 - 금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예상액 분석보고 추진
- 2021년도 수산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대상자 추천(3인)
 - 대통령표창 : 동원산업 선장
 - 장관 표창 : 동원수산, 신라교역 선장

- 2020년도 국제협력 및 원양산업발전 유공자 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수상(4명)
 - 동원산업 통신장, 신라교역 기관장,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해외수산협력센터 이재영 행정관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회원사)
 - 성경수산: 서울시 강남구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76, 804호(초량동, 대한통운빌딩)
 - 현원수산: 부산시 남구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48, 402호(광안동, 은해빌딩)
 - 선민수산: 부산시 남구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48, 403호(광안동, 은해빌딩)
- 협회 운영 관련 업무추진
가. '20. 12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나. 협회비 연락두절 및 폐업 제각 예고공문 내용증명 발송(이사회 제각·제명 추진)
- '20년 11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396,721	83
- 참 치	268,716	77
· 횡감용	33,341	89
· 통조림용	235,375	75
- 명 태	25,063	111
- 오징어	33,399	182
- 콩 치	5,942	71
- 기 타	63,601	78

회원지원부

○ 외국인선원 관련 업무추진

가. 외국인선원 국내 입국 관련 국회 방문

- 일시/장소 : '20.12.15, 15:00/ 국회 맹성규의원실
- 참석자 : 맹성규 의원, 이택준 비서관,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실 양대산 보좌관,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국내입국관련 현안사항 설명 및 건의

나. 외국인선원 표준근로계약서 등 현지어 검토협조 (선원복지고용센터/12.7)

다.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내용안내 및 관련사항 이행협조(회원사/12.10)

라. 외국인선원 표준근로계약서 등 인니어, 베트남어 번역의뢰(12.11)

마.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내용 이행을 위한 관련 자료 안내(회원사/12.17)

바.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내용 이행사항 및 향후 계획 조사양식 안내(회원사/12.21)

○ 어선 검사 관련 업무추진

가. 한국선급과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14,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 한국선급 진중광 감사업무팀장 및 정성화 법령업무팀장 외/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부장 외 1명
- 내용 : 정부의 한시적 어선검사 연장 지침에 의거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한 어선에 대한 수검 문제 해결방법 협의

※ 해당 선사에 의견조회 공문 송부(동원산업 및 신라교역/12.15)

나. 어선검사 연기관련 회신

- 정일산업 어선(아모르101, 아모르707)이 입거 검사를 위한 도크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검사 연기 가능

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선박) 위생점검 유예 알림
- 코로나 19로 인해 '20년도 정기 위생점검 대상 선박 1년 유예

○ 어선원 근로조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8, 14:00/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해양대학교 전용우교수 외 연구진, 해양수산연수원, 선원연맹, 원양노조, 해운조합, 수협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ILO어선원노동협약 비준관련 영향분석 등 연구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등

○ 2020년 해외선원묘지관리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개척비 실태조사

- 일시/장소 : '20.12.8 / 울산 간절곶
- 참석자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원양개척비 실태조사

나. 2020년도 해외묘지관리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해수부/12.24)

○ 수산물 수출관련회의 참석

가. 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9, 10:30-12: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장관 외,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기관/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외

- 내용 : 수출업체 애로사항 점검, 수출확대 방안 논의

나. 원양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2.16 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외,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정일산업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장 외

- 내용 : 원양업체 수출 확대 방안 논의

※ 수출증대 협조요청 공문 송부(전회원사/12.17)

- 2020년도 수산계고교 종합승선 실습과정 취업 설명회
 - 일시/장소 : '20.12.9, 13:00 / 부산시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원양업계, 대형 선망수협 등
 - 내용 : 수료생 29명(어업 18, 기관 11) 면접 등
- 한국형 e-Navigation 사업단 제11차 과제총괄 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14, 14:00 / 세종시
 - 참석자 : 과제총괄 위원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2020년 한국형 e-navigation사업 최종 평가 결과 심의 건
- FTA 이행지원자문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11, 13:3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형선망수협 등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수산분야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 논의 등
- 한국선급 2020년 임시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22 / 서면회의
 - 내용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서면결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6차 정기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22, 1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의 이사회 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심의
- IMO 제8차 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 제1차 사전 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2.2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담당 사무관 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 선주협회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선박 기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 하기 위한 조치계획

- 원양업계 주요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12.29, 15: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원양선사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 부장 및 차장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안 주요내용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동향 설명
- IMO 제7차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STCW-F(어선원 훈련, 자격증명 등에 대한 국제협약) 검토
- 전자조업보고용 VMS 교체수요 조사 결과 통보 (FMC/12.10)
 - 39개사 196척 중 175척이 교체 희망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업무추진
 - 가. 승선근무예비역 근무현황 자료제출(해수부/12.10)
 - 11개사 157명 복무 중('20.11.20 현재)
 - 나. 202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 조사자료 제출(해수부/12.17)
 - 50명중 47명 편입완료
 - 다. '21년도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배정안내(남북수산 등 11개사/12.30)
 - 배정인원: 11개사 55명
- 협회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재발급 안내 (전화원사/12.16)
 - 임금채불이 있을 경우 선박별 채불 개월, 금액 명기 공문제출
- 오징어채낚기 업종 어로계약서 '상여금' 규정관련 업계 검토안 알림(원양노조/12.24)
 - 동 검토안에 대해 원양노조의 검토의견 접수(12.28)
- 2021년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안내(회원사/12.30)
 - 월 최저액(재해보상 월 최저액) : 2,249,500원 (2,658,570원)

- 외국인선원 최저액 : 승선경력 3년 이하 477\$ / 3년 초과 641\$
- 2021년도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알림 (전화원사/12.30)
 - 냉동명태·냉동오징어 : 22%, 냉동꽂치 : 24%(△2%)
- '20년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의결서 제출 (해수부/12.23)
 - 2021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 및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방안
- 연안국 인근 공해상에서의 항행 주의 당부 (전화원사/12.23)
 - 공해를 향해 중 연안국의 군함·관공선 접근 시 국기계양
- 코로나 관련 업무 추진
 - 방역강화 대상국가 조정에 따른 관계기관 조치 등 안내(전화원사/12.30)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안내 (전화원사/12.28)
 - 대북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 주의 촉구

홍보·마케팅 지원 센터

- 12월호(제1128호) 제작
 - 협회소식 3건(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근 30년 만에 신조, 외국인 선원 교대 막힌 원양어업 비상, 참치 업계, 영국 소매 유통업체와 선원인권 보호 논의)
 - 국내소식 7건, 해외수산정보 52건
 - 명예해양수산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5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82호 12.2, 83호 12.9, 84호 12.16, 85호 12.23, 86호 12.30,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82호 정보 11건(키리바시, 한국 선망선 가장 많은 참치 어획/ 아르헨티나, 외국 어선들과 싸울

- 수 있는 새로운 도구/ 日 10월 수산물 수출 감소)
- 제83호 정보 7건(IATTC 연례회의, 합의 도달못해 / 알래스카 명태 업계 A 시즌 대비/ 포클랜드, 영국에 EU 수산 협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 제84호 정보 14건(WCPFC 회의 종료/ 美 동베링해 명태 2021년 쿼터 4% 감소 / 日 오징어 10월 어획량 70% 증가)
- 제85호 정보 12건(냉동 가다랑어 방콕 시세 1,350 달러/ 중국 선사, 에콰도르에 어업기지 건설 계획/ 대구 자원량, 알래스카만 전역 반등)
- 제86호 정보 10건(11월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최고치/ Norebo, 러시아 남극 크릴 어업 복귀 주도/ EU, 영국 수역 어획 할당액 25% 감소)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박희섭 성경수산 대표 부경대 장학재단에 5억 원 쾌척(12.28, 부산일간지, 수산전문지)
 - 수산신문(1.1) 15면, 한국수산신문(1.1) 19면, 어민신문(1.1) 17면, 수산인신문(1.1) 17면
 - 나. 협회 인사(12.21, 일간지, 수산전문지)
 - 수산인신문(12.28) 2면, 수산신문(12.28) 4면, 어민신문(12.28) 11면
- 언론 취재 대응
 - 국내 비거주 외국인으로 최저임금 대상 아님, 자국 임금 대비 몇 배 높은 수준임을 설명
 - ※ 외국인선원 임금 문제 보도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보도 자체 요청
- 어민 신문 기고(경영지원본부장)
 -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산업 생존법] 국내 원양 산업 발전방안
- 협회장 신년사 작성, 게재
 - 수산인신문(1.1) 13면, 한국수산신문(1.1) 16면, 한국수산경제(1.1) 19면, 수산신문(1.1) 5면, 현대 해양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95차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기간/장소 : '20.12.1~5, 08:00(KST)/ 화상회의
- 참석자 : 미국, 일본, 에콰도르 등 IATTC 회원국, NGO 등 옵서버
(우리나라) 해수부, 태평양 참치어업출 어사 / 협력1부 차장 등 3명
- 내용 : 열대성 다랑어 보존조치 등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등

○ 제17차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가. WCPFC 제17차 연례회의

- 기간/장소 : '20.12.9~15 / 영상회의
- 참석자 : 한국, FFA, 미국, 일본, EU, 중국, NGO 등 / 협력1부
- 내용 : 열대성참치보존관리조치 1년 연장 협의 등

나. 업계 회의 개최

- 기간/장소 : '20.12.2,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태평양 참치어업출어사/ 협회 협력1부
- 내용 : FAD 금어기, 눈다랑어 어획한도 등 열대성 참치 보존조치 관련 업계 입장 수렴

○ 제4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기간/장소 : '20.12.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자원평가 결과에 따른 WCPFC 눈다랑어 쿼터 증대에 관한 업계 입장 수렴

○ 미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KMI 연구용역 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0.12.11, 14일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KMI,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 연구센터 / 협력1,2부
- 내용 : 미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방향 용역 보고 및 해수부 관련 부처별 대응 계획 보고

○ 제96차 IATTC 특별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2.23, 00: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한국, 미국, 에콰도르, EU, 일본, NGO 등 / 협력1부
- 내용 : 열대성 다랑어 보존관리조치 1년 연장 ('21년) 합의 등

○ 참치선망 입어 지원사항

- '21어기 투발루 수역 입어로 남부
- '21어기 PNG, 솔로몬, 투발루, FSM 수역 입어 허가장 취득
- 조업일수 전배 및 추가구매
- '21어기 PNG 수역 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

○ 오징어어업 지원사항

가. 제1차 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17,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 출어사, 오징어 트롤 출어사 / 협력1부
- 내용 : '21년 포클랜드 파견 건 결의, 입항검사 순서 협의 등

나. 포클랜드 입어 업무 지원

- 선박별 선박 안전 관리관 및 비상훈련 목록 통보 (대방사)
- 육상안전관리자(DPA) 교육 신청(KR)

해외협력 2부

- 제3차 콩치붕수망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2.18,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각 사 대표 / 해외협력2부장
 - 내용 : 노사 현황사항 협의
-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역 생산량 제출(12.9/ 해수부)
- '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사업비 지급 승인 알림(12.16 / 부산시)
 - 콩치붕수망 8개사 9척, 총 54,684천원
- 그린스타 선원 환자 발생에 따른 통보내용 입수 (12.17 / 해수부)
 - 일시/장소 : '20.12.9, 01:00(UTC) / 남극 SRZ 수역
 - 그린스타 내 선원 1명 호흡 곤란 및 발열 증상 발생
 - 특별조업수역 내 전제 및 이동 불가하나 선원 신변 안전 복지에 따른 긴급 의료조치 시행 (킹스타 선원 → 그린스타 이동)
- 러시아 반독점청 외국자본 투자비용 정보 기사 알림(12.28 / 한러위원사)
 - 러시아 반독점청에서 외국인어업 분야사업 보유 최대 지분 25% 수준 하향 개정 준비중 알림
-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업무추진 가. 공해저층어업에 관한 결의사항 이행 고시 개정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2.23, 14:00 / 온나라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파원, KMI, 저연승 및 트롤 업계 / 해외협력 1,2부
 - 회의내용
 - 옵서버 커버리지 증대(50%→100%) 사항 확인
 - 해양포유류 저감장치 각 분야별 논의키로 합의
- 나.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 고시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알림(12.30 / 남빙양·오징어위원회)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선정 및 적용에 대한 의견 조사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103개사 729건('20.11.1-11.30)
- 2021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항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 근로조건 개선협의회
 - 일시/장소 : (6차) '20.12.7, 13:30, (7차) '20.12.14, 14:00, (8차) '20.12.21, 14:00, (9차) '20.12.28, 14:00, (10차) '20.12.14, 14:00, / 부산지부 회의실
 - 참석자 : (노측) 항운노조 7명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3명
 - 내용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지속 협의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4개사 5척(북양트롤1, 참치연승4)
 - 출항 : 4개사 4척(오징어채낚기1, 참치연승 3)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다자·양자회의 참석 및 후속 업무
- 가. 제17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12.7~15/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우동식 국장, 국총과 유은원 과장,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FMC, 수품원, 원양협회, 업계,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 방향 설정, 청새치, 날개다랑어 등 WCPFC 어종 관리 논의

나. 제95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 일시/장소: '20.12.1~5/ 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원양산업협회 진호정 차장, 최봉준 주임, 백상진 사원, 수품원 박민재 주무관, 조업감시센터 김수연, 업계,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원태훈 전문관, 김지은 전문관
- 내용: 과학위원회 보고서 채택, CMM 개정, IUU 선박 목록, 2021/2022년 예산 채택, 화상 회의 ROP 특별작업반 개설 등

다. 제96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 특별 회의 참석

- 일시/장소: '20.12.23 00:00/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원양산업협회 진호정 차장, 최봉준 주임, 백상진 사원, 업계,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김지은 전문관
- 내용: 열대 참치 보존관리조치, 사무국장 대리 임기 연장 논의 등

라. WCPFC 관련 한일 양자 회의 참석 및 통역

- 일시/장소: '20.12.4 14:00/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우동식 국장, 원양산업과 양영진 과장, 국제협력총괄과 유은원 과장, 원양산업과 김정례 사무관, 국제기구팀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센터 김선경 전문관
- 내용: 열대성 참치 보존관리조치, 코로나19 예외 조치 후속 조치, 선원 노동 기준, 태평양 참다랑어 등

마. 제165차 FAO 이사회

- 일시/장소: '20.11.30~12.4 / 청사 532호
- 참석자: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농식품부, 해수부 국총과 김승룡 사무관, 조안나, 박지혜 주무관, 외교부, 산림청, FAO협회, KMI, 협력센터 양재걸 팀장

- 내용: 2022-31 전략적 프레임워크 및 2022-25 중기계획, 민간분야 연계를 위한 FAO의 새로운 전략, FAO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위원회·재정위원회, 농업위원회·산림위원회 및 지역총회 결과 보고, 차기 이사회 의제 등

바. FAO 환적 연구 웨비나

- 일시/장소: '20.12.15. 13:00 / 영상회의
- 참석자: FAO 회원국, 사무국, NGO 등 110여 명
- 내용: IUU어업 예방 및 환적에 관한 FAO 글로벌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 보고

사. 제34차 FAO 수산위원회 아시아지역 협의회

- 일시/장소: '20.12.16. 18:00 / 영상회의
- 참석자: FAO 아시아지역 그룹 회원국 대표 20여명
- 내용: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25주년 선언문 채택 등 주요 의제 사전 협의

○ 일본 관련 업무 추진

가. 방사능 처리수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 지역 언론 동향
- 도쿄전력, 기존 계획대로 탱크 설치 완료 관련 언론 동향 수집
- 일본 경제산업성 제3차 보정 예산안 설명자료 중 처리수 관련 부분
 - 경산성 보정 예산안 설명자료 번역
- 처리수 처분 관련 일본 동향 자료 작성
 - IAEA 사무국장 일본 언론 인터뷰 내용 정리
 - 일본 경산성 보정 예산안 중 처리수 관련 내용 정리

나. 일본 해양영토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요청자료 번역(해양영토과)

- 11월 해양영토과 요청 조사 사항 정리 자료 작성
 - IHO S-23, 독도, 무인기, 영토주권전시관 관련 동향
- 일본 표준 자료 (종이, 디지털 매체) 인식 조사 (해도 디지털화 관련)

- 외무성 기자회견 내용 및 파생 기사 번역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독도 관련 최신 업데이트 내용 조사
 - 한국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반박 발표
- 중국 해양수산 주요이슈 분석 및 조사
- 가. 해양영토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동향 모니터링 (해양영토과)
 - 이어도 경계획정 관련 논문 번역
 - 중한경계획정에서 쑤옌지아오(이어도)의 법적 효력 논의 외 3건
 - IHO S-23 관련 대만/중국 언론 반응 정리
 - 남중국해/동중국해 관련 최근 언론 보도 모니터링
 - 중국 2020년 황해 위성발사 기록 정리 및 예측 정보 수집
- 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만/중국 언론 모니터링(해양환경정책과)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가. 원양산업뉴스 13건 업로드
- 나. '20년 하반기 국가정보 업데이트 자료 수집 및 업데이트(12.31)
 - 스페인, 수리남, 예멘, 오만, 칠레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하반기 활동보고 내역 책자 제작 배포 (평가위원, 해수부, 원협)
- 나. 명예해양수산물 '21년 수시보고 수요조사 (12.10~12.18, 국제협력총괄과, 협회 전회원사, 협의회회원사, 원양협회)
- 다. '21년도 연간 희망과제 조사 (해수부, 전회원사, 협의회회원사 등)
- 라. 하반기 명예해양수산물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20.12.18~22/ 서면평가

- 명예해양수산물 9인 하반기 평가 완료,
 - * 평가 결과보고(해수부, 12.28)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20년 키리바시, 투발루 ODA 사업기간 연장요청 (해수부, 12.18)
 - 기존 : (키리바시, 투발루) '20.1.1~'20.12.31
 - 변경 : (키리바시) '201.1.~'21.12.31 (투발루) '20.1.1~'21.03.31
- 나. '20년 해양수산 ODA 워크숍 참석
 - 일시/장소 : '20.12.23, 10:00(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총괄과장, ODA 담당 사무관,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등
 - 내용 : '20년 사업추진실적, '21년 사업추진 계획 공유 및 보고, 신규사업 발굴 현황 공유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 가. 조사표 개선 의견 수렴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12.3~14/ 서면검토
 - 참석자: KMI 윤미경 연구원, 대해수산 등 7개 업체, 원양산업협회 진호정 차장, 협력센터 윤유정 행정관
 - 내용: 조사표 개선 내용 검토 및 이용자 의견 수렴
- 나. 원양어업 통계조사 단독/종합 보고서 발간(12.30)
- 해외수산투자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정기협의회 서면 개최 안내 공문 발송(12.21, 회원사)
 - 일시/장소: '20.12.21~28/ 서면 의견 수렴
 - 내용: 협의회 안건(해외수산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논의 등
-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 가. 원양산업종합정보(스리랑카편) 제작 및 배포 (12.24)
 - 원양업계, 협의회 회원사 등 75개사
- 나. 해외수산투자활성화 워크숍 온라인 강의 영상 배포(12.11, OFIS홈페이지)



오징어 된장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210Kcal
- 재 료 / 오징어 : 2마리,
된장, 청주, 물엿 : 2큰술씩,
다진 파 : 2큰술,
다진 마늘, 깨소금 : 1큰술,
붉은고추 : 1개, 참기름 : 1/2 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 손질하기** : 오징어는 신선한 것으로 준비하여 내장과 먹물주머니를 떼낸 뒤 마른 행주로 싸서 껍질을 벗긴다.

- ② **칼집 넣어 썰기** : 손질한 오징어는 갈라 펼쳐서 안쪽에 빗살 무늬의 칼집을 넣은 뒤 꼬치에 맞게 길이 10cm, 폭 3cm정도로 썰어 놓는다.

- ③ **양념장 만들기** : 그릇에 붉은 고추를 다져넣고, 된장, 청주, 물엿, 다진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모두넣고 섞어 된장양념장을 만든다.

- ④ **꼬치에 끼워 굽기** : 설어놓은 오징어를 꼬치에 췌 다음, 석쇠를 달구어서 된장양념장을 발라가며 앞뒤로 굽는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자치항 PAD 6.60% 2020~2027 채권 개장식

- 12.18, “다카르 자치항이 채권을 발행했다.

○ 이 채권은 60억 FCFA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내, 지역 및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약 10일 후에 158%의 초과 가입으로 조기 마감했다.

- 이 자금으로 다카르 자치항은 향후 Ndayane 항구 부지에 토지 기반 시설을 조달할 것이다. Ndayane 항구는 Diass 통합 경제 지역(ZESID)과 연결된 다중모드 및 다기능 항만 산업지역(ZIP)이 될 것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유로/톤)	기타
황다랑어	3.4kg 상	1,773	
	1.8kg 상	1,155	
	1.5kg 상	1,073	
눈다랑어	10kg 상	1,300	
	3.4kg 상	1,300	
	1.8kg 상	1,250	
가다랑어	3.4kg 상	1,300	
	1.8kg 상	1,250	
	1.5kg 상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50 유로 / MT	‘20.12.29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2020 년도 투발루 연승선 입어

- 투발루 2021 어기 연승선 입어 조건은 작년과 변동이 없으나 올해부터 VDS 시행이 확정되었다.

- 연 조업 가능 일수는 적당 기본 50일부터 추가로 최대 200일까지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라이선스 기간은 ‘21.12.31일까지이며 최초 기본 50일 입어로 5,000 달러, 1차 추가 시 50일, 입어로 5,000 달러, 최종추가는 100일 입어로 5,000 달러 (총 200일 연간조업 할 수 있음), 읍저버비는 5,000 달러(1년)이다.
- 현재 한국 연승업체가 원하는 PNA iFIMS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재협의를 중이나 투발루측도 국제관계 상 어쩔 수 없다며 이에 보여주기 식이라도 시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입장
- 우리측 입장을 고려한 VDS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3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53/ MT	‘21.1.11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1월 31일까지 블루코드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모든 공공단체, 사업체, 학교, 대중교통, 교회 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단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 미국령사모아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전면 중단하였다.
- 모든 여선 및 운반선은 입항 할 수 있으나 사전 입항 허락을 받아야 하며(1개월 이상 타 항구 입항한 적 없어야 함) 입항 시 조건에 따라 선원은 선박에서 격리조치.(모든 여객선은 입항 중단)
- 자국민을 위해 1차로 2021년 1월 말 본국 송환 항공 특별비가 운항될 예정이며, 현재 귀국 희망 신청자는 약 900명 정도로 먼저 하와이에 지정된 호텔에서 10일간 격리조치, 2차례 음성판정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 모든 격리비용은 정부에서 지불한다.
- 지난해 12.19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Moderna 또는 Pfizer를 접종을 하고 있다.

나.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Santa Co	황다랑어	라운드	1,350	
	눈다랑어	라운드	1,150	
	가다랑어	라운드	1,15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1.77(gallon)	'21.1.4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관

가. 어업동향

- 2020년 12월 중순부터 오징어 어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상 12월은 작은 사이즈 오징어가 어획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큰 사이즈 위주로 어획되고 있다.(2L/L/M)

나. 현지기업 동향

- 뉴질랜드 최대 수산회사인 샌포드는 코로나 악영향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투자 등을 연기했다.
-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캅피 왕새우 선박 건조 계획을 연기했다. 이는 2020년 이익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여파로 현금 유동성 및 부채 관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샌포드는 전했다.
- 샌포드는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장기간 미판매되고 있는 재고 처리를 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600	Sea Jho Co.Ltd
	L	3,550	
	M	3,35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Z	MGO \$591/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12.1
	LMFO \$53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신임 임정택 주가나 대사와 수산업계 간담회 가져

- 김성수 대사의 뒤를 이어 임정택 특명전권대사가 새로이 가나에 부임했다.
- 원양어업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나 한인들의 특수한 입지 조건을 견지하여 가나에 부임하자 곧바로 Tema항을 방문하여 수산 업계를 둘러보고 업계 담당자들과 상견례를 했다.
- 수산업계에서는 파노피 수산의 안길환 법인장, 야그네스 수산 최일석 이사, 트라스트 수산의 이동욱 부장, DH 수산의 전병주 과장, BSK 수산의 강석진 부장, Rico 수산의 이영찬 과장,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이 참석했다.
- 오전에 먼저 참치캔 공장인 Cosmo와 냉동창고를 시찰하고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한인식당에서 가졌다.
- 근래의 잦은 해적 피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파견된 김진균 영사도 참석했다.
- 신임 대사와 자기소개, 대사관과 고국에 바라는 수산 현안에 대하여 환담을 가졌다.
-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역시 최근의 잦은 해적 피습에 대한 대책과 해적 출몰 지역 조업 금지에 관한 법률 상정에 대한 업계의 부담에 대한 것이었다.
- 인근서부 아프리카 연안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무장병력 승선, 피랍 선원들에 대한 몸값 협상을 위한 상용 국제에이전트 지정 등에 대하여 건의 했다.

- 임정택 신임대사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사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중 과세 문제 조속한 해결과 수산 ODA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 현재 가나 수산업은 Covid 19 팬데믹 사태와 ICCAT나 EU 등 국제기구의 어업에 관한 규제 강화로 50년 역사의 원양 기지인 가나의 한인 수산업이 예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한인 수산인들은 이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나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짐하면서 대사관과 고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350	
	10kg 하	1,100	
가다랑어	3.4kg 상	1,450	
	1.8kg 상	1,400	
	1.8kg 하	1,350	
	1.5kg 하	1,10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90/kl MGO	'20.12.31	육상급유
SK B&T	\$460/kl MGO	'20.12.31	양상급유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조업 동향

- 2021년 페루 수역 보니또(태평양 가다랑어, *Sarda chiliensis chiliensis*)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51,000톤으로 공시했다.(2020년에는 1차 공시 7만 6천톤, 2차 공시 1만 2천톤 등 총 88,000톤이었다)
- 2020년 11.12부터 개시된 페루 중·북부 수역의 2차 멸치 조업에서 12.23까지 1,634,303톤이 양륙되어 총허용어획량 2,780,000톤의 59%가 소진되었다. 위 기간 중 조업 척수는 708척, 일일 평균 어획은 39,581톤이었다. 1차 멸치 조업 시 소진된 2,370,000톤을 감안하면 2020년 12월 23일까지 4백만톤의 멸치가 어획되었다.
- 2020년 11월 페루 수산물 양륙량은 총 812,800톤이며, 이중 멸치 양륙량은 710,000톤으로 전체 양륙량의 87%이다. 멸치 외 양륙량이 크게 증가한 어패류는 고등어, 전갱이, 가리비, 대왕 오징어이다.
- 2020년 페루 JUREL(전갱이, *Trachurus murphyi*) 어획은 양호했다. 총허용어획량 140,000톤 중에서 12월 18일까지 139,505톤 양륙되었으며, 12월 22일 조업 종료 공시되었다.

나. 코로나 동향

- 페루 코로나 2021년 1월 7일 상황 : 확진자 1,024,432명. 사망자 37,991명.
- 페루 입국 시 필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 페루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지참 필.

- 여행자 건강 상태 확인서 및 자가 격리 서약서 (페루 이민청에 온라인으로 제출 필)
- 페루도착 /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입국 사전 등록(권고사항)
- 한국-페루 사증 면제 협정이 아직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다. 페루 출장자(여행객)는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

다. 페루 정부에서 지정한 VMS 장착 권

- 2021년 1월 5일 페루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채낚기 선박 1척이 수리 부품 인수 차 CALLAO항 입항을 요청 했으나, 페루 항만국에서 입항 불가함을 공시했다.
- 2021년부터 페루에 입항할 중국 채낚기 선박들은 지금부터 양상 또는 타국 항구에서 페루 VMS를 장착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입항을 허가한다. 예를 들어 2월 20일에 장착한 선박은 6개월 이후인 2021년 8월 20일 이후 입항 가능하고, 그 이전의 입항은 불가하다.
- 중국선박 대리점에 의하면 중국 정부에서 본 장비 장착의 유예 요청 등 페루 정부와 협상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페루 항만국과 해안 경비대에서는 자국법(DECRETO SUPREMO 016-2020-PRODUCE) 준수가 최우선이며 관련법의 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중국 채낚기 선박들의 입항을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차후 한국선박 입항 시에도 위와 유사한 문제 발생이 염려되는바 본 사태 주시하면서 수시로 보고하겠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47 / 갤론	'21.1.4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관



정연국
명예해양수산관

가. 남아공 동향

- 코로나 19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어업 그룹 Oceana는 수익 9% 증가, 영업이익은 21% 증가했다.

○ 상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에서는 최근 백상어가 사라진 것은 상어 연선 어업의 낚시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최근 Orca 발생과 그 지역의 포식 결과이라고 한다.

나. 모잠비크 동향

- 스페인 어업 그룹 Nueva Pescanova는 자회사인 Pescamar를 통해, Matola Fisheries School과 협력하여 모잠비크의 젊은이들을 위한 인턴십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 Pescamar는 훈련을 통과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취업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모잠비크 해양어업 분야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스페인 국제 개발 협력기구(AECID)와 협력하여 수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 AECID에 의한 최초의 APPD(Public-Private Alliance for Development)이다.
- 모잠비크 해양수산부(Ministry of Sea, Inland Waters and Fisheries)는 모잠비크 어업 생산량이 2024년까지 683,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gusta Maita(오거스타 마이타)

수산부 장관은 11월 21일 세계 어업의 날을 맞아 “생산 증대, 연안 및 어업 회복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수산 및 양식에 관한 워크숍 개최식에서 목표를 발표했다.

- 카보 델가도의 모잠비크 북부에서 반란 문제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어업분야에 불확실성이 크다.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IFO 380 \$357 / MT MGO \$513 / MT VLSFO 0.5% \$487 / MT	‘20.12.17
Cape; Town	MGO \$510 / MT VLSFO 0.5% \$462 / MT	‘20.12.17
Beira; Petromoc	MGO \$450 / MT	‘20.12.17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관 성명 가나다순>





방콕, 가다랑어 거래 거의 없어

방콕 코로나19 우려 불구, 시장은 지속적 참치가공업 운영에 자신

방콕의 참치 가공업자들은 감염 사제 증가로 인해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같이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소식통은 냉동 가다랑어 원물 수요가 매우 낮으며 거래가 거의 없고 가격이 약화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태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참치 산업이 계속 평상시와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28개 주를 고위험 지역으로 선언했다. 28개 주 중에는 많은 참치 캔 가공공장이 소재해 있는 방콕과 Samut Sakhon 주가 포함되어 있다. 소식통은 작업장에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태국 캔 가공업자는 코로나19 규정에 따르며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다랑어 거래는 지난해 12월 수준인 톤당 1,300 달러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톤당 1,200 달러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일부 있었으나 현금 지급 가

격은 톤당 약 1,230 달러이다. 한 소식통은 몇 주 안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요 하락 요인 중 하나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평균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PNA 어장에서 선망선의 일일 어획량은 37톤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망선은 평상시에 하루 평균 28~30톤을 어획한다.

하지만 중서부태평양에서 출발한 운반선은 현재 방콕에 보이지 않는다. 가다랑어가 중서부태평양 어장에서 출발해 방콕에 도달하기까지 약 4~6주가 걸리므로 곧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피트 컨테이너 부족은 현재 캔 가공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이다. 아시아 가공업자들은 수출용 20피트 컨테이너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캔 가공업자는 컨테이너가 부족해 생산량을 줄여야 했으며 따라서 원자재를 적게 구입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8일자

중국 Liancheng사, 80일 만에 참치 가공공장 건설

무역 센터 프로젝트의 일부로 샤먼시에 건설

중국 샤먼시에 신규 참치 가공 공장이 문을 열었다. 이 참치 공장은 Liancheng Overseas Fishery(Shenzhen) 그룹이 투자했고 9월에 설계 및 시공을 시작하여 11월 22일에 참치 가공품을 생산하기까지 8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Liancheng 그룹은 70척의 연승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해외에 12개의 전액 출자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Luen Thai Fishing Venture (LTFV)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Liancheng 그룹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업

(국 제도에서 조업)에 대해 MS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신규 공장 건설은 참치 공급망을 포괄할 무역 센터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이다. 참치 공장은 건설에 총 5,000만 위안(770만 달러)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금액 기준으로 연간 3억 위안(4,600만 달러)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에 새로운 가공 시설, 항구, 무역센터 개발을 포함해 국내 참치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30일자



좋지 않은 어획 상황,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자극 가다랑어 가격 7% 상승한 1,400 달러 수준

세이셸 참치 양륙 상황이 좋지 않아 생산자와 참치 캔 가공공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월은 보통 인도양에서 참치를 어획하기 좋은 달이지만 2020년 12월은 선주들에게 재앙이었다. 1월 첫 주에도 아직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현재 운이 좋을 시 하루에 10톤 정도 어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1.8kg 이상)은 2020년 12월보다 7% 상승한 톤당 1,150 유로(1,400 달러)이다.

현재 세이셸 참치 가공공장인 타이 유니온사의 IOT 공장과 Princes Tuna Mauritius사는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양륙되는 모든 가다랑어를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월 5,500~6,000톤 수준의 가다랑어 매입은 공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Princes Tuna Mauritius사는 재고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지만 IOT 공장은 세이셸 빅토리아항에 양륙되는 물량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수년 동안 1월과 2월은 조업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달이다. 선주들은 1월과 2월에 선망선유지보수를 진행해왔다. 현재 단기적으로 어획량이 급등할 것으로 추측되는 징후는 없다.

한편, 몰디브 참치 어획 상황은 2020년 말에 가다랑어는 좋았고 황다랑어는 감소했다. 채낀기선들은 올해 1월에 바람이 강해 항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EU 선망선단 일부가 인도양 북부 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선망선단의 지원선이 계속 위치를 바뀌가며 탐색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조업 상황은 FAD 조업과 스쿨 조업 모두 어획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가다랑어의 크기가 평소보다 작다고 한다.

황다랑어 가격은 좋지 않은 어획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톤당 1,800 유로(2,196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12일

미국, 대만 강제 노동 연승선 어획물 차단 대만 국적 참치 연승선에 인도보류명령 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대만 국적 참치 연승선 'Lien Yi Hsing No. 12'호에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다. 인도보류명령에 따라 이 원양어선에서 어획한 참치 및 기타 수산물들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CBP는 조사 과정에서 강제 노동 지표를 발견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따르면 이 선박은 Maung-Jian Chai사 소유 선박으로 2001년에 건조되었고 79.14톤 규모이며 15명의 선원이 승선한다.

연방법의 19 U.S.C.1307 조항은 해외에서의 죄수 노동(convict labor), 강제 노동, 아동 노동을 포함한 처벌적 제재에 따른 계약 노동에 의해 채굴, 생산,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CBP는 지난 8월에 대만인이 소유한 바누아투 국적 참치 연승선 'Da Wang'호에 인도보류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마찬가지로 'Tunago No. 61'호와 'Yu Long No. 2'호에도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4일자



일본 양식 참다랑어 알 부화 예측 성공

세계 최초 일본 연구팀 종묘 생산 효율화 진전

일본 横浜市立大 대학원과 慶応義塾大, 수산연구·교육기구,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심층 학습을 이용하여 태평양 참다랑어 알 부화 예측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산란 직후 알의 부화 여부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향후 양질의 알만을 선택해 부화, 사육하여 종묘 생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완전 양식 기술에 의한 인공 종묘 대량 생산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2년 近畿大가 완전 양식에 성공했지만 참돔이나 연어 등 다른 양식 대상 어종에 비해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 효율적인 종묘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었다.

지난해 봄과 여름에 걸쳐 실시한 연구에서는 산란 직후의 인공 종묘 유래 양식 참다랑어 알 290개를 수집해 현미경으로 촬영했다. 초점(세포질, 알 윤곽, 유구)을 바꾸어 3종류의 화상을 취득해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되었는지, 부화 후 무(無)급이 생긴 일수가 순조롭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5일 이상인지 아닌지 또는 4일 이하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했다.

그런 다음 알 품질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Faster R-CNN라는 심층 학습을 이용한 물체 검출 방법으로 알 화상만을 추출하여 VGG16이라는 심층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으로 ① 알 화상으로 성공적인 부화 여부 ② 무 급이 생긴 일수가 5일 이상인지 아닌지를 예측했다. 사전 조사 결과와 비

교하여 수십 차례 예측을 반복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훈련시켜 정밀도 향상을 도모했다.

훈련의 결과 예측 정답률은 ① 86% ② 80%로 ①의 예측에서는 숙련된 양식 연구원 4명의 평균 정답률 72%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예측에 중요한 부위를 가시화한 결과 세포질과 알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는 등 숙련 양식 연구자의 관심 부위와 일치했다. 심층 신경망이 알 품질 예측에 중요한 부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질이 높고 예측된 알이 많이 함유된 집단을 우선적으로 사육하면 더 효율적인 종묘 생산이 기대된다』고 밝힌 뒤 『다른 양식 어종에서도 알 품질 예측이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에는 横浜市立大 대학원 寺山慧准 교수, 慶応義塾大의 家永直人 특임 조교, 수산연구·교육기구의 樋口健太郎(히구치 켄타로) 주임 연구원, 高志利宜 그룹장, 玄浩一郎 부장, 이화학연구소의 津田宏治(츠다 코우지) 팀장이 참여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1일자





일본 참다랑어 TAC 동결 수산정책 분과위원회가 차기 분 승인

일본 농림수산부 장관의 자문 기관인 수산 정책 심의회 자원관리 분과회의가 12월 16일 일본 도쿄 도내에서 열렸으며 차기(제7 관리 기간, 장관 관리 어업은 2021년 1~12월, 지사 관리어업은 2021년 4월~2022년 3월)의 참다랑어 총 허용어획량(TAC) 할당에 대해 이번 어기(제6관리 기간) 초기 배분과 거의 같은 양으로 정해 승인했다. 또한 남방 참다랑어에 대해서도 차기(2021년 4월~2022년 3월)의 TAC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참다랑어 TAC 배분은 11월 TAC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회의에서 보여준 안과 같은 내용이다. 이 분과회에서는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JF全漁連 전무 오오모리 토시히로 위원이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 교환 회의 시 연안 어업자로서 경영상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는 점을 근거로 쿼터 재조정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배려와 정부의 유보 쿼터를 연안 어업에 배분, 경영 의존도를 기준으로 하는 쿼터 배

분 검토 외에 경영 안정 지원 대책의 실효성 검증을 수산청에 요청했다.

차기 배분은 30kg 이상 대형어에 대해 지사 관리(연안)어업으로의 배분이 이번 어기 당초와 같은 수량인 1,571톤, 대신 관리 어업인 가다랑어·참치어업이 11톤 증가해 363톤, 중대형 선망어업이 3,063톤으로 이번 어기와 같은 양이다. 소형어에 대해서는 연안 어업으로의 배분이 이번 어기 대비 8톤 감소한 1,797톤, 중대형 선망 1,500톤과 가다랑어·참치어업 62톤은 이번 어기와 동일한 양이 되었다.

연안 어업의 도,도,부,현 별 배분에서는 대형어가 모두 이번 어기 당초 대비와 동일하며, 소형어도 일부 지방에서 증감이 있었지만 거의 같은 양이었다.

남방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이월 분의 계상과 정부 유보 쿼터 분의 차감으로 총 6,569톤을 장관 관리 구분에 배분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2월 18일자

타이 유니온, 참치 사업 외 타 분야 투자 지속 바이오 제약 기업과 손잡고 보조 식품 제조 합작사 설립

타이 유니온 그룹(TU)은 1월 7일에 보조 식품을 제조, 유통할 합작회사 Interpharma-ZEAvita Co.,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합작사는 유니온 그룹의 완전 소유 자회사인 Thai Union Ingredients와 Inter Pharma Public Company가 합작하여 설립되었다. Inter Pharma Public Company는 웰빙, 노화 방지, 미용 진단, 기축 관리 제품이 주요 사업 분야인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새로운 합작회사 지분은 타이 유니온 그룹이

49%(98만 주), Inter Pharma사가 51%(1백 19만 999주), Inter Pharma사 대표 이사인 Trinnawat Thanitnithipphan 박사가 1주를 보유하기로 했다.

총 투자액은 2,000만 바트(66만 5,000 달러)로 투자액을 회사 보통주 2백만 주로 나눈 값은 주당 10 바트(0.33 달러)이다.

지난해 타이 유니온 그룹은 핵심인 참치 사업 이외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월 7일자



11월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 최고치

어업 노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서부태평양에 출어한 선망선은 11월에 전반적인 어업 노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별 최고 어획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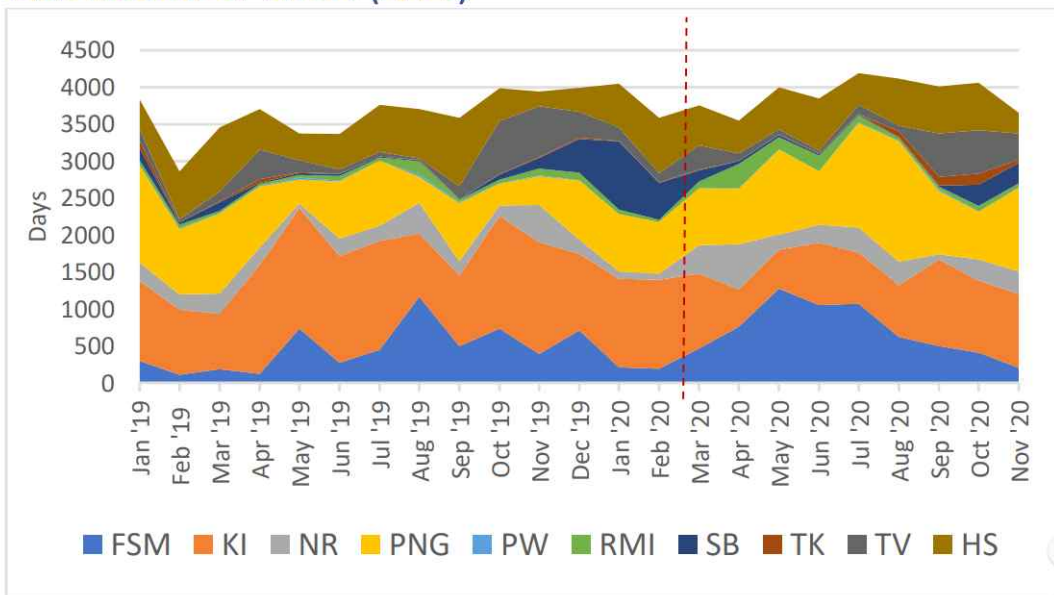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정보에 따르면 PNA EEZ와 공해에서 총 참치 어획량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FAD 금지가 9월말 종료된 후 10월부터 증가해 11월에 정점을 기록했다.

PNA 잠정 자료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선망 선단의 어획량은 11월에 약 13만 5,219톤을 기록해 10월에 비해 13% 증가했다. 13만 5,219톤은 201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가장 많이 어획한 수역은 파푸아뉴기니(PNG)와 키리바시로 중서부태평양 총 어획량의 65%를 차지했다.

흥미롭게도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전체 선망 조업 일수는 11월에 약 3,600일로 전월 4,000일에 비해 약 10% 가량 감소했다. 조업 일수 3,600일은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선망선들은 10월에 비해 공해에서 조업 노력이 50% 감소한 반면 PNA 수역에서의 조업 비중이 증가했다.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 일수는 10월 3,418일에서 11월 3,389일로 소폭 감소했다. 어획량을 감안하면 선망선들은 파푸아뉴기니와 키리바시 EEZ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선망선은 중서부태평양에서 하루에 거의 30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했고 37톤의 참치를 어획했다. 이러한 어획량은 올해 최고 수준이며 지난 12개월 동안으로 봤을 때도 최고치이다.

Distribution of effort (EEZs)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23일자



참치 대형 눈다랑어 700 엔을 유지

대만 뱃떼기 구매 반입 감소에도 소비 불안으로 보합

냉동 눈다랑어 시세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표인 인도양 대만 뱃떼기 구매 가격은 대형 눈다랑어(1마리 40kg 이상)가 12월 상순 현재 kg당 700 엔으로 전월 상순부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입항이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 감염 확대로 소비 불확실성이 강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도쿄 도요스 시장 도매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하순부터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살코기의 보통 제품 이하에서 타이트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해 1개월에 20~25% 가격이 상승했다. 11월 상순에는 인도양 대만 뱃떼기 구매 가격이 눈다랑어, 황다랑어 모두 1마리 25kg 이하가 50 엔 인상되었다. 두 어종 모두 가격은 동일하고 15kg 이상이 450 엔, 10kg 이상이

350 엔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달에 신종 코로나 감염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10월 하순부터 대도시의 음식점에 대해 영업 시간 단축 요구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쳐 업소용이 중심인 경매장 참치를 중심으로 판매가 부진했다고 도요스 어시장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반입량도 부진했다. 11월 시즈오카 시미즈항 체선 운반선의 월간 반입량은 600톤으로 1000톤 아래로 떨어졌다. 인도양 대만 뱃떼기 구매 가격(kg 당)은 다음과 같다.

- 눈다랑어 = ▽ 40kg상 700 엔 ▽ 25kg상 550 엔
▽ 15kg상 450 엔 ▽ 10kg상 350 엔
- 황다랑어 = ▽ 25kg상 550 엔 ▽ 15kg상 450 엔
▽ 10kg상 350 엔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16일자

IATTC 특별 회의 눈다랑어·황다랑어 현행 관리 조치 연장

FADs 강화는 2022년 목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특별 회의가 12월 22일 웹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내년 눈다랑어·황다랑어 자원 관리 조치에 대해 현행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등이 요구한 선망어선에 의한 집어장치(FADs) 관리를 2022년부터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1~6월)에 개최되는 특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IATTC는 동부 태평양에서 가다랑어·참치, 청새치류 자원 관리를 하는 국제기구로서 일본과 미국, 중국 등 21개국으로 구성된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키리바시와 바누아투를 제외한 19개국이 참여하고 일본 대표로 수산청 자원 관리부 福田工 어업교섭관이 참여했다. 11월 30일~12월 4일에 개최된 연례 회의에서 내년 눈다랑어·황다랑어 자원 관리 조치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의 요구로 이번에도 서둘러 열렸다. 눈다랑어·황다랑어 현행 관리 조치는 선망에서 72일 전면 금어와 FADs 사용 수 제한(대형 선박에서 최대 450개)이, 연승에서 눈다랑어 연간 어획량 쿼터 2007년 대비 5% 감소(일본 3만 2,372톤)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선망에 대해서는 IATTC 해역에서 일본 조업은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조치 연장에 대해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합의되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FADs 관리 강화에 찬성하고 있는 곳은 콜롬비아와 일본, 멕시코,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이다. 한편, 에콰도르와 엘살바도르 등은 반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특별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참치, 코로나19 전염 방지에 도움 될 수도

중국 Bohai 대학 연구 결과, 영국 매체에서도 보도

참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우수한 식품 중 하나이다. 중국 Bohai 대학의 과학자들은 어류에서 발견된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침투와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국 언론 매체인 Mail Online에서는 과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으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을 선정했고 그중 참치를 제일 처음 소개했다.

참치가 인간에게 주는 건강상 이점은 명확하다. 참치는 비타민 B12와 오메가3가 풍부한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하다.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치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했다. 코로나19 폐쇄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개인 식료품 저장실에 영양가 높은 식품을 채우는데 참치캔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참치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진다면 매우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다.

10월 14일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참치 단백질의 역할과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 과학자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참치가 인체에서 소화될 때 생성되는 펩타이드가 코로나19 감염 과정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그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수용체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합해 세포를 속여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침투하도록 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2(ACE2), 또 다른 하나는 효소로 바이러스가 복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메인 프로티에이스(Mpro)이다.

펩타이드는 단백질과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지만 단백질보다 길이가 짧다.

논문 결과는 실험된 참치 단백질 중 하나가 바이러스의 정상적 작동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메인 프로티에이스(Mpro)의 활동을 억제하여 복제를 방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ACE2 수용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논문에는 『전반적으로 펩타이드 E-M은 음식 섭취가 그 공급원으로 안전성이 우수하며 코로나19 환자에게 좋은 영양상의 보충을 제공한다』 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영국 영양학 협회(British Dietetic Association, BDA) Hannah Whittaker 대변인은 Mail Online에 『이 연구는 참치의 단백질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억제하면 SARS-CoV-2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Mail Online에서 보도한 다른 코로나19 감염 예방 식품은 다크 초콜릿, 포도, 케피어(kefir), 자몽 씨 추출물, 통조림 식품 방부제, 해조류(카라기난)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12월 29일자





신선 오징어 연간 10% 증가한 2만 9,000톤 24일 가나자와와 미야코 시노마키가 견인

올해 일본의 신선 오징어 어획량은 2019년 실적을 웃돌았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2월 24일까지 전국 주요 어항의 누계 어획량은 2만 8,588톤으로 2019년 실적보다 10% 증가했다.

내유량이 증가한 가운데 어획이 진행되어 동해와 태평양의 어획량이 늘었다고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측은 밝혔다.

6월은 가나자와의 낚시어업 어획물, 9~11월은 산리쿠의 저인망 어획물이 호조를 보였다. 가나자와의 12월 24일까지의 누계 어획량은 2019년 누계를 36% 상회하는 6,002톤이다. 산리쿠에서는 미야기·이시노마가 2.5배인 2,952톤, 이와테·미야코가 2배인 2,853톤을 기록했다.

한편, 홋카이도는 『쿠시로 등을 제외한 각지에

서 어획량이 줄었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도우토우 해역까지 북상하는 오징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어획의 중심이었던 라우스는 12월 24일까지의 누계 어획량이 2019년 누계를 90% 밑도는 205톤이었다.

12월 전국 주요 어항의 어획량은 전년을 밑돌 전망이다. 1~24일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291톤이었다. 12월 중순부터 주로 동해에서 태풍이 이어져 조업 어선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센터 측은 말했다. 주요 어획 항구는 미야코와 이시노마키로 1마리 240~300g을 중심으로 정치망 물과 저인망 물을 어획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이시카와 현 오징어 어획량 18% 감소 2021년 1~3월 정치망 전망 발표

일본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는 12월 15일 내년 1~3월의 정치망에 의한 오징어 조업 전망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이시카와현 내 어획량을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342톤으로 예측하고, 지난 5년 평균(361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정치망 어획량은 해마다 변동이 크고, 해수 온도가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1~3월 어획량과 1월 50미터 깊이 수온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토반도 북쪽 근해와 아키타현 서쪽 근해의 평균 수온이 낮을수록 어

획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 수산자원연구소는 내년 1월에 노토·아키타현 앞바다의 50미터 깊이 수온을 지난 5년 평균 수준으로 예측했다.

한편, 같은 시기 어획 대상이 되는 겨울 태생군의 자원량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올해 자원량은 전년과 지난 5년 평균을 밑돌아 어획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시카와현 수산종합센터는 수온과 자원량에 따라 어획량을 예측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1일자



도요스 시장 신선 오징어 전년 상회, 4,579톤 1~11월 코로나 영향 받지 않고 가격 유지

2020년 일본 도요스 시장(도쿄도 코토구)의 신선 오징어 입하량은 올 11월말에 전년을 웃돌았다.

도쿄도에 따르면 1~11월 입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4,579톤으로 이미 2019년 연간 3,400톤을 넘어 섰다. 평균 가격은 kg당 765 엔으로 2019년 대비 3% 하락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이 산업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오징어는 대중어이기 때문에(어가 침체 등이 심각했던 고급 생선에 비해) 영향이 없었다고 도요스 시장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음식점용으로 쓰이는 5kg 10~15마리 들이 사이즈가 부진했다』는 소리도 있다. 『내년 상황도 신종 코로나(감염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장래를 불안해 한다.

<봄, 가을 풍어에도 연간 3만톤 전후>

2020년의 신선 오징어 어획량은 기록적인 흥어였던 전년을 웃돌았다.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월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주요 어항의 어획량은

전년 연간 실적을 10% 웃도는 2만 9,000톤 가량이었다. 5~6월, 9~10월의 어획량이 호조를 보였다.

5월의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한 1,967톤, 6월은 83% 증가한 4,388톤이었다. 가나자와항이 어획의 중심으로 6월 가나자와항의 어획량은 92% 증가한 2,902톤으로 급성장했다. 7~8월의 주요 어항의 합계는 전년을 밑돌았지만 9월은 23% 증가한 4,628톤, 10월은 93% 증가한 5,297톤이었다. 아오모리·하치노헤, 이와테·미야코, 미야기·이시노 마키에서 어획이 집계되었다. 11월은 32% 감소한 3,500톤이었다.

다만 최근 일본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1987~2015년 연간 10만톤 이상(신선·냉동 포함)을 기록했지만 16년 이후 급속히 감소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신선 어획량이 3만톤을 밑돌았다. 2020년의 신선 어획물은 전년을 넘었다고 하지만 예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일본 2021년 어기 살오징어 TAC 동결 수산청 5만 7,000톤 제안

일본 수산청은 12월 17일 도쿄 도내에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 정책에 관한 검토회를 열고 2021년 어기(2021년 4월~2022년 3월)의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과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해 모두 2020년 어기와 동일한 5만 7,000톤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 참가한 어업 관계자들로부터 대체로 양해를 얻었다.

그러나 어업자로부터는 정부가 여러 나라에 자원 관리를 재촉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2020년 어기와 같은 양으로 하는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터져나왔다.

검토회에서 일본 수산 연구·교육 기구는 최근의 자원 평가 결과와 2021년 ABC 안을 설명했다. 10년 후인 2030년 목표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오징어 동계 발생 계군에 대해서는 어획 페이스 β 를 0.6으로 했을 경우의 ABC 안이 2020년 추정 어획량 대비 80% 감소한 0.9만톤, 동 추계 발생 계군에 대해서는 β 를 0.9로 했을 경우의 ABC 안이 2020년 추정 어획량 대비 15% 감소한 18.7만톤(모두 외국 어획을 포함한 값)이 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어업자 단체는 중국과 북한 등 외국에 의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획이 많은 점 등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외국에 자원 관리를 호소하도록 요구하는 소리, 일본만의 어획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의문시하는 소리 등이 높아졌다.

일본 수산청은 ABC와 TAC를 이번 어기와 동량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살오징어는 수명이 1년으로 짧아 자원 상황의 예측이 어려운 데다 중국 등 이웃 나라의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어업 단체는 2020년과 2021년 각 어기를 같은 양으로 할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일본 수산청의 후지타 히토시 자원 관리 부장은 『검토회에서 받은 지적과 새로운 자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어기 이후 TAC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산청은 앞으로 내년 1월 개최되는 수산 정책 심의회에서 TAC에 대해 심의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1일자

중국 원양 선사, 에콰도르에 어업기지 건설 계획 어업기지 건설 관련 MOU 체결

올해 여름 중국 오징어 선단이 에콰도르 수역을 침범한 이후 중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긴장 기류가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국 원양어업 회사는 에콰도르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China Ocean Development Group과 메르코수르(남미 경영 공동체)는 에콰도르에 원양 어업기지 설립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중국 선전에 있는 웨라톤 호텔에서 열렸으며 China Ocean Development Group의 Liu Rongsheng 회장, 에콰도르의 Paul Penaherrera 상무 참사관, 중국 원양어업 협회의 임원을 비롯해 다른 기업 임원, 공무원, 연구원,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0년 12월 17일자



日 수산청, 동해 북부 명태 관리 2개안 검토 연안어업 2021년 7,900톤, 근해 저인망 1만톤 5년간

일본 수산청은 12월 22, 23일 홋카이도 무로란시와 오타루시에서 명태 태평양 계군·동해 북부 계군 자원 관리 방침 제3회 검토회의를 열고 12월에 시행된 개정 어업법 하의 새로운 관리에 대해 도내 생산자 단체, 연구 기관과 협의했다.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동해 북부 계군에 대해 일본 수산청은 10년 후(2031년)의 친어량이 잠정 관리 기준치를 50% 이상의 확률로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안 어업자는 2021년 어기 어획량을 7,900톤으로 하는 안을, 근해 저인망 어업자는 당초 5년간의 어획량을 10,000톤에 고정하는 안을 희망했다. 개정 어업법에서는 최대 지속 생산량(MSY)을 달성하기 위한 친어량의 목표 관리 기준치를 정해 어획 시나리오에 따른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을 산출하고 총 허용 어획량(TAC)을 설정한다.

최소한의 친어 자원량 회복을 목표로 여러 어획 시나리오와 ABC를 제시, TAC를 설정했던 기존보다 중장기적 노력이 요구되어 자원 관리의 장벽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자원 침체가 긴 명태는 동해 북부의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수반하는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내 관계자의 반발도 강해 협의는 난항을 겪어 왔다.

명태의 동해 북부 2019년 친어량은 5만 6,000톤으로 금어 조치를 해도 10년 간으로 목표 관리 기준치(38만톤)까지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자원 재건 계획의 대상이기 때문에 잠정 관리 기준치(한계 관리 기준치)인 17만 1,000톤을 10년 만에 50% 이상의 확률로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의 어획 규모나 친어량의 변화로부터 도출된 안전 계수(β)를 산출해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할 확률을 시나리오로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내 관계자는 TAC를 남긴 경우 다음 해로 이월을 가능하게 하는 어획량 고정 기간을 두고, 고정 기간 종료 후에는 β 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는 것 등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수산청이 5개 제시한 시나리오 중 연안 측은 연안어업 측은 기본 케이스 중 하나인 β 0.9로 10년 후에 51%의 확률로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안(이월 불가)을 희망했다. 이 경우 2021년 어기 어획량은 7,900톤으로 2020년 어기(어획량 6,700톤)를 상회한다.

한편 근해 저인망어업 측은 당초 5년간 어획량을 1만톤으로 고정, 6년째 이후 β 0.8로 하고, 10년 후에는 56% 확률로 친어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안(이월 불가)을 희망했다. 소규모 어업 종사자가 많은 연안어업은 날씨 등에 의한 어획량 변동도 크고 할당량을 남겼을 경우 다음 해로의 이월 실현을 중시했다.

오타루시 협의 후 수산청의 후지타 히토시 자원관리 부장은 『 β 에 의한 관리가 기본이지만 2개 안 모두 채택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향후 의견 제출 제도, 연초 수산 정책 심의회에서 2개 안을 제대로 설명하고 최종 시나리오 채택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평양 계군, 3년간 17만톤 고정>

태평양 계군은 2019년 친어량이 30만 2,000톤으로 목표 관리 기준치(22만 8,000톤) 이상이다. 12월 22일 무로란시의 회의에서 어업자 측은 당초 3년간의 어획량을 17만톤으로 고정, 4년째 이후의 β 를 0.9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경우 TAC를 남긴 경우 다음 해에 이월은 불가능하다. 고정 값은 자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2020년 어기 TAC는 14만 3,000톤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12월 25일



AI로 정치망어업 어종 등 판별

日 수산연구·교육기구와 아오모리현 산업기술센터 개발 중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와 지방 독립 행정 법인인 아오모리현 산업기술센터는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시내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정치망 어획물의 어종별, 사이즈별 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어와 고등어, 방어 미성어 등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자동 선별,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기록한다.

미래에는 연어 암수 구별과 성숙도도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수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상재의 부가가치화 데이터 분석에도 도움이 된다. 기술 개발의 주요 목적은 노동력 부족 해소와 부가가치화다. 어종별, 사이즈별 선별 및 데이터 축적을 자동화하여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어획물의 품목 세분화 및 이력 관리 확보가 쉽고, 부가가치화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로 축적한 어종별, 사이즈별 어획량은 각 어종의 자원 상태 및 종목별 매출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민간과도 연계해 광 센싱(센서의 작동으로 물체 또는 소리·빛·압력·온도 등을 탐지·관측·계측하는 일)으로 고등어 기름기를 조사하는 기술 등도 연구 중이다.

두 기관은 『어시장과 수산 가공에서 센싱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 사례는 적다. 지금까지 시장 통계는 어종별 어획량, 중량뿐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사이즈와 마리 수 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로 유통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7일자

日 기업, “인재 육성”이 사업의 중점, 성장 위한 열쇠

기업 상위 100명 신춘 설문 조사

일본 미나토신문은 최근 일본의 전국 수산 관련 기업인 중 상위 100명에게 연간 경영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도 차기 실적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그룹 매출과 영업 이익 모두 '증가'라고 대답 한 사람의 비율이 50%로 전년 조사보다 모두 5포인트 상승했다. 매출과 영업 이익이 '확보'라는 비율은 낮고,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이 늘었다.

또한 2021년 경영의 최대 포인트는 '인재 육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인재 확보'를 합치면 20%를 넘었고 그 다음이 '이익'이었다.

향후 성장을 위해 검토해 나갈 포인트는 한마디로 '업무 생산성 향상'이 20%로 가장 많았다. 장기적으로는 40%가 '인재 육성'을 꼽았다.

<양판 50%, EC 20%>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력할 판매처를 물었더니 '양판점·슈퍼'가 50%를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 통신 판매'의 전자 상거래(EC)가 20%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양판점의 판매 호조, 가정식 수요 증가 영향이 짙게 나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일자



마루하니치로 베트남에 가공 거점 마련 사이공푸드를 자회사 화

마루하니치로는 1월 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산 식품 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Sai Gon Food Joint Stock Company(사이공푸드)의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화 한다고 발표했다. 주식 양도 실행일은 1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소유 비율은 57.93%라고 한다. 주식 취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사 그룹의 아시아권 가공 거점으로 중국과 태국에 이은 것으로 베트남에서는 처음이 된다.

사이공푸드는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9억 2,000만 엔. 마루하니치로에 따르면, 사이공푸드는 고등어, 전갱이, 연어, 송어 필렛 등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산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성장력 있는 베트남 국내 시장에도 주목하여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을 「SG FOOD」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다. 냉동 찌개

세트 및 레토르트 즉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한다. 최근에는 유아식 판매도 시작하고 있다.

마루하니치로는 2017년에 일본 수출용 수산 가공품 제조 위탁처로서 사이공푸드와 거래를 시작했다. 제조 기술 향상과 사업 발전에 일조를 담당하면서 관계를 강화해 왔다. 마루하니치로가 장기 경영 비전으로 내거는 글로벌 영역에서 마루하니치로 브랜드의 수산물 가공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종합 식품 기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최적이라고 생각, 새로운 수산 가공 거점 확보 및 가공 식품의 개발, 제조, 판매 플랫폼을 획득하기 위해 사이공푸드를 자회사화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상온, 냉동, 냉장, 칠드(0도 내외의 저온 저장)를 모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1일자

일본 2020년 11월 가계 해산물 지출 6% 증가 총무성 가계 조사, 참치와 연어가 호조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0년 11월 가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해산물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6,271 엔이었다. 2월 이후 전년보다 상회해 이어졌다. 신선 어패류는 7% 증가했다. 참치와 연어, 새우 등 많은 품목에서 전년을 웃돌았다. 염건 어패류와 어육 반죽 제품은 2% 증가했다. 생선의 지출액은 7% 증가했다.

지출액이 큰 순으로는 참치가 8% 증가, 연어가 4% 증가, 방어가 27% 증가, 새우가 12% 증가했다. 모듬회는 7% 감소로 여전히 부진했다. 조개류는 4% 증가했다. 가리비가 18% 증가, 굴 10% 증가, 바지락은 전년 수준이었다. 염건 어패류는

멸치가 2%, 자반 연어가 4% 감소했다. 단가가 하락한 명란은 수량이 늘었다. 1월 이후 전년 상회가 계속되었던 장어 구이는 23% 증가했다. 생선 절임은 23% 증가, 해산물 통조림은 12% 증가했다. 어육 반죽 제품은 어묵이 5% 증가, 튀김 어묵이 3% 감소했다. 신선 육류는 10% 증가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전부 수량과 금액 모두 전년을 웃돌았다.

외식 지출은 15% 감소했다. 스시는 13% 증가로 호조를 보였다. 식료품 전체는 2% 증가한 7만 9,781 엔이었다. 집계 세대수는 7,506 세대.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1일자



日 2020년 어획량 10% 감소한 15만톤 해외선망어업협회 회장, 새로운 정상에 대한 전략 연두 회견

일본 해외선망어업협회의 中前明 회장은 1월 8일 도쿄 도내에서 연두 회견을 열고 지난해 회원사의 어획 실적이 수량으로 15만톤 미만, 금액은 250억 엔 정도였다고 밝혔다.

흥어였던 전년을 10% 하회했다. 2년 연속 10%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기대치의 80%밖에 어획하지 못했다. 지난해 라니냐 현상 때문에 원래는 중서부 태평양 서측에 어장을 형성했어야 했는데 어군이 적었다고 말했다.

어획 금액이 전년을 하회한데 대해 일본 국내, 해외 모두 가공 공장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확보가 잘 안되어 생산 능력이 떨어져 차질을 빚어 어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조림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업 비용도 올랐다. 외국인 읍서버는 통상 일본 항구에서 양륙 시 승하선 하지만 각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승하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中前明 회장은 『어장에서 각국까지의 항공 일정이 더해져 10일 정도의 손실이 나오게 되었다. 상당히 큰 부담이 됐다』 고 말했다.

도서 국가 해역에서의 조업에 필요한 어선 척수, 일수 입어료(VD)에 대해서는 하루 1만~1 만 1,000 달러로 고공 행진을 하고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입어료 감액을 요구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VD가 남으면 타국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추가

로 입어료를 정가로 사지 않을 수 없어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고 호소했다.

최근 시행중인 「돈되는 어업」에 의한 해외 선망선 대형화에 대해서는 1월에도 760톤 형 1척을 준공하여 승인을 받은 3척이 모두 건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4척을 대형 공통 선형으로 할 계획이며 가능하면 이번 봄에도 승인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적당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정부에 대해 ① 계속 「적립 플러스」 확보를 통한 해외 선망어업 유지, ② 해외 선망선의 대형화에 대한 「돈되는 어업」의 승인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1일자





日 잡는 어업 자원 회복과 부가가치화 기대 기술 활용이 열쇠, 재흥 위해 규모별로 역할 분담

천연 물고기를 어획하는 어업은 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화와 그에 따른 자원·어획량 회복, 조업의 효율화, 부가가치화 등이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어업과 대규모 어업의 역할 분담이 미래를 향한 큰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일본의 연간 어획량(양식 제외)은 1980년대에 안정적으로 1,000만톤을 넘었지만 그 후 감소해 최근에는 300만톤 대다.

원인은 어업자 감소와 어식 수요 감소도 거론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원의 감소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원을 늘리면 어획량 회복이 가능하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가 주요 어종 32군에 대해 분석해 29군은 어업 관리에 따라 회복 여지가 있고, 12군은 어획량을 2배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자원 감소의 원인 해명과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에 종래 족쇄였던 것이 데이터 부족이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도 50개 어종에 대해서만 과학적인 데이터 수집과 자원 평가를 해왔었지만 대상 종의 확대를 표명했다.

2021년도에 약 200종의 데이터 수집을 시작, 2023년에는 과학적인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분석을 활용한 어업 관리로 2030년에는 일본 국내 어획량(해초 제외)을 30% 증가시켜 444만톤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 기대되는 것이 ICT에 의한 어업 데이터의 수집이다. 어떤 어종이 어느 해역에서 얼마나 잡힌 것인가 등의 데이터를 모으면 자원량 및 증감 분석

에 도움이 된다.

실제 홋카이도 루모이시에서는 어업자가 태블릿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해삼 자원량을 파악, 어업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어업자가 번거로움 없이 할 수 있는 스마트폰·PC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 지능(AI)으로 분석, 어장 위치와 어가 등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다양한 기업과 연구 기관이 실증 중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하거나 어선의 어획 데이터 속보를 활용해 어항 측의 수용 태세(얼음이나 운송 차량의 준비 등)를 조절하거나 하여 부가가치화와 비용 절감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보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업 재건을 위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대규모 어업 및 소규모 어업의 역할 분담이다. 대규모라면 ‘저렴한 비용 단가로 대량으로 물고기를 생산’하고 소규모라면 ‘대규모 어선이 들어갈 수 없는 해역의 어종도 잡을 수 있다. 생선을 세밀히 다뤄 부가가치화를 하기 쉽다.’ 등의 강점이 있다.

서로가 강점을 살려 상품개발·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으면, 대중어 수요와 특별한 날의 수요, 양쪽 모두를 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일자



日 확대되는 고령자 음식 시장 5년만에 20% 증가 민간 예측 2024년도 2,100억 엔, 수산물의 유력 판로

<통신 판매 거래도 강세, 회원제 택배 이용 증가 전망>

일본 국내 노인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시장 조사 업체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병의 증가를 배경으로 2024년도 고령자와 치료식용 가공 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도 추정치 대비 2% 증가한 2,076억 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2020년 봄부터 신형 코로나 재난에 따라 일본 국내 식품 통신 판매 시장도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시장 조사 업체는 특히 생협 등의 회원제 택배 서비스는 계속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앞으로 수산물 유망 시장으로 양 시장은 존재감이 강해질 것이다. 고령자용으로 먹기 편하게 배려하거나 영양면을 강화하는 등 제조업체나 도매업체 등에서 양 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과 제안, 판로 개척이 지속적인 회사 성장의 열쇠가 될 것 같다.

<재택 간호 증가로 간편식 수요 높아져>

시장 조사 기관인 야노경제연구소(도쿄도 나카노구)에 따르면 2019년도의 일본 국내 간호식·고령자 식·치료식의 가공 식품 시장 규모 추정치는 제조업체 출하 금액 기준으로 1,736억 엔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특히 『국가의 정책이나 고령자 생활 스타일 변화로 병원에서 고령자 시설로, 그리고 고령자 시설에서 자택으로 고령자의 주거지가 변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같은 개호식 시장에서도 재택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나 고령자 부부가 쇼핑과 요리의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영양을 배려한 맛있고 안전한 개호식이 요구되게 된다』 고 전망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재택 배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도시락 등 각종 조리품의 2019년도 일본 시장 규모 추정치는 말단 매출액 기준으로 1조 4,411억 엔으

로 1.5%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24년도 추정치가 2019년도 대비 9.6% 증가한 1조 5,797억 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부드러운 개호식이나 당뇨병 등 환자를 위한 치료식, 건강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식품과 고령식은 모두 소폭 증가 또는 증가 추세에 있다』 고 분석했다.

<고급 음식도 주문>

이 회사는 국내 식품 통신 판매 시장에 대해 조사하여 2020년도 동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약 4조 100억 엔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재난에 따라 특히 긴급 사태 선언 하에서 양판점에서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집까지 배송해 줄 식품의 통신 판매 수요가 급증했으나 2021년도 이후에는 업태에 따라 정착·시장 확대되는 것과 예년과 같이 시장규모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정착·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생협과 연계 식품 택배 등 정기 구입을 전제로 한 회원제 판매 서비스를 들었다. 반면, 재택 배식 서비스 등의 업태는 코로나 재난 이전 수요 수준으로 즉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이나 생활 양식에 적합한 구매 빈도와 양을 살피면서 일정한 수가 정착할 것으로 보았다.

2020년은 일상적인 식품 판매 외에 주문 음식 등의 수요도 신장되었다. 소비자는 외식이나 여행을 자제하는 한편 높은 가격대의 음식을 주문하고 집에서 평소보다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편리성과 품질의 높은 수준을 실감한 이용자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일자



미쓰비시식품, 2021년 트렌드로 지방 시장 확대에 주목

시조 코리코 이치 히라 베키 브서

종합 식품 업체인 미쓰비시식품(도쿄도 분쿄구 모리아마 토오루 사장)는 최근 2021년 트렌드 전망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코야마 히로시 마케팅 본부장이 등단하여 ①지방 위상 상승 ②남성 시장에 주목 ③디지털화×생활인의 가치관 변화를 주목 포인트로 꼽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 개인 환경을 중시하고 수도권 근교(거주지)를 선택하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은 대도시 주변 시골 지역에서의 인구·세대 구성이 변화하여 음식의 소비 경향도 다양화되고 제품의 판매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30대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시장 전개도 중요시 했다.

이 세대는 식사와 요리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 코로나 재난에 따른 재택근무로 조리 참여도 크게 늘었다. 디지털화에 대한 의식도 높고,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식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 때문에 『디지털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의 제공, 상품과 생산자의 스토리를 전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치가 중요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코로나 재난으로 확대된 전자 상거래(EC) 사이트나 인터넷 슈퍼의 이용은 앞으로도 더욱 신장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요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터넷 판매의 효율성과 실제 점포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체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점포의 효율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등 인터넷 구매의 즐거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올림픽 효과는 제한적, 가정에서 경기 관전에 대응>

코야마 본부장은 향후의 경제 동향에 대한 견해도 나타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 『일본 방문자 수의 감소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 했다.

한편, 가정 내에서 경기를 관전(재택 관전)에 의한 수요 증가는 확실해 『재택 소비를 정확하게 파악한 수요 환기의 접근이 중요하다』 고 했다.

이밖에도 경제 회복에 선행하는 중국을 벤치마킹 하여 향후 경제 회복 동향을 예상했다. 개인 소비의 회복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외식 산업은 더욱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日 11월 수산물 수출 냉동 부리 필렛 수량 20% 증가 냉동 고등어 수량, 금액 두 자리 신장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1월의 일본 수산물(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meal) 수출은 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4만 4,162톤, 금액이 12% 감소한 199억 4,100만 엔이었다.

전월에 이어 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으나 금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으로는 냉동 고등어와 부리 필렛이 수량, 금액 모두 증가했다. 냉동 가리비는 수량은 늘었지만 금액은 줄었다.

냉동 고등어는 수량이 20% 증가한 6,670톤, 금액이 13% 증가한 8억 200만 엔이었다. 베트남 수출은 수량이 16% 감소한 2,810톤, 금액이 16% 감소한 3억 6,200만 엔을 기록했지만 태국 수출은 수량이 64% 증가한 1,674톤, 금액은 49% 증가한 1억 8,600만 엔이 되는 등 수량, 금액 모두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을 웃돌았다.

부리 필렛은 주력인 냉동이 수량, 금액 모두 2개월 만에 전년을 웃돌아 19% 증가한 598톤, 10% 증가한 9억 7,400만 엔을 기록했다.

이중 대미 수출은 19% 증가한 453톤, 9% 증가한 7억 6,200만 엔이었다. 신선은 40% 감소한 67톤, 39% 감소한 1억 2,100만 엔에 그쳤다.

냉동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가 되는 태국 수출은 21% 증가한 1,309톤, 29% 증가한 1억 7,400만 엔이었다. 냉동 날개다랑어는 태국 수출이 25% 증가한 250톤, 51% 감소한 4,400만 엔을 기록한 반면 베트남 수출은 2.4배인 720톤, 53% 증가한 2억 1,800만 엔으로 수량, 금액 모두 신장되었다.

냉동 가리비는 주력인 중국 수출이 20% 증가한 5,964톤, 47% 감소한 13억 3,400만 엔이었다. 대만 수출은 91% 증가한 369톤, 51% 증가한 8억 400만 엔이었다. 미국 수출은 36% 감소한 88톤, 45% 감소한 2억 1,200만 엔으로 수량, 금액 모두 감소했다.

냉동 가을연어는 10% 증가한 1,574톤, 10% 증가한 5억 9,700만 엔으로 수량, 금액 모두 두 자리 신장율을 보였다.

명태는 8% 감소한 1,132톤, 3% 증가한 1억 8,400만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日 11월 수산물 수입 칠레산 은연어 신물 17% 증가 새우, 오징어 감소로 총 9% 감소한 19만톤

일본 재무성이 12월 25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11월의 수산물 수입량(어패류 및 그 조제품, 어분·meal, 해초)은 전년 동월 대비 9% 감소한 19만 2,326톤이었다. 1~11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194만톤이었으며, 연간 수입량은 전년의 247만톤을 하회할 전망이다.

鮮냉연어·송어가 17% 증가한 2만 6,468톤으로 3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웃돌았다. 지체되었던 칠레산 은연어는 신물 반입이 이뤄졌다.

鮮냉참치는 16% 증가한 1만 6,152톤이었다. 鮮냉새우는 8% 감소한 1만 6,076톤, 오징어는 20% 감소한 1만 1,359톤이었다.

수산물 수입 금액은 11% 감소한 1,308억 7,900만 엔이었다. 鮮냉참치가 5% 증가한 반면, 鮮냉연어·송어가 2% 감소했고, 鮮냉새우는 17% 감소했다.

연어·송어 수입량 가운데 냉동은 16% 증가한 1만 6,806톤, 신선·냉장은 4% 감소한 1,679톤. 냉동 대부분을 차지하는 칠레산 은연어는 17% 증가한 1만 2,509톤이었다. 평균 단가는 kg 493 엔으로 전월 대비 3 엔 떨어졌다. 홍연어는 12% 증가한 2,920톤. 신선·냉장 주력인 노르웨이 대서양 연어는 6% 감소한 1,276톤이었다.

냉동 참치 수입량 중 눈다랑어는 31% 증가한 6,349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중국산이 3배인 2,126톤, 대만산은 11% 증가한 2,751톤이었다. 황다랑어는 6% 증가한 3,989톤, 남방 참 다랑어는 4배인 1,307톤, 가다랑어는 41% 감소한 1,098톤이었다.

새우 수입량 중 남방계가 7% 감소한 1만 5,027톤, 조제품이 10% 감소한 5,968톤, 빨강새우(북쪽분홍새우)계가 13% 감소한 895톤었다. 남방계 중에는 인도산이 감소 영향으로 36% 감소했다. 아르헨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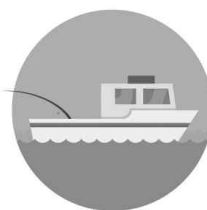
나산은 붉은새우 반입이 작년 10월에서 올해는 11월까지로 지체된 때문에 53% 증가했다.

냉동 오징어 중 살오징어 계는 15% 감소한 9,679톤이었다. 중국산이 44% 감소한 3,064톤인 반면 페루는 전년의 4배인 3,179톤을 기록했다.

수리미의 총 수입 수량은 23% 감소한 1만 9,355톤, 금액은 32% 감소한 60억 100만 엔이었다.

이중 명태는 24% 감소한 8,857톤으로 9월 45% 감소, 10월 28% 감소에 이어 계속 반입이 감소했다. 실꼬리돔은 30% 증가한 2034톤이었다. 전갱이는 3배인 2,298톤, 고등어는 48% 감소한 2,156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내년 2월에 시푸드쇼 오사카 대일본수산회 출전자 모집 중

대일본수산회(시라스 도시로 회장)는 2021년 2월 24~25일 아시아 태평양 트레이드 센터 (오사카시)의 ATC 홀에서 제18회 「해산물 쇼 오사카」를 연다.

동 전시회는 서일본 최대의 수산 박람회다. 사무국의 이그지비션 테크놀로지스가 1월 22일까지 출전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부스 수는 이전보다 200개 증가한 500개다. 예년 동시 개최했던 「농업 식품 EXPO」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전시회장 면적은 이전의 2배 가까이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회의장 공간, 통로 폭 등을 충분히 확보한다.

참가 대상은 어패류, 수산 가공품, 조미료 등 수산 상재를 다루는 기업 외에 수산 가공 기기, 냉동 냉

장 기기 제조업체, 수산 관련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 등이다.

참가비는 1부스(폭 2m, 깊이 2m, 높이 2.7m)가 세금 제하고 113만원이다. 시스템 벽, 회사명판 1개, 테이블 1개, 파이프 의자 1개가 요금에 포함된다. 예년에 동시 개최되었던 「스시 EXPO」는 「스시 EXPO with NEW 일본 식재료 코너」로 내용을 확대, 초밥에 관한 식품 재료와 조미료, 각종 음료 등 '스시와 일식'을 주제로 스시 상재를 소개한다.

▼ 문의처, 출전 신청 장소 = 시푸드 쇼 사무국
(전) 03 · 5775 · 2855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1일자





미국 농무부, 최신 식생활 지침 발표 수산물 섭취 확대 권고

미국 농무부(USDA)와 보건복지부(HHS) 2020-2025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국인,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매주 최소 2회 수산물을 섭취하도록 권장했다.

지침에서는 일주일에 8온스(약 227g)의 수산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국립수산연구소(NFI)에 따르면 어린이의 94%, 성인의 80%가 8온스 미만의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다.

USDA는 단백질 식품군에서 다른 식품으로 고기 26온스(약 737g), 견과류·씨앗·콩류 제품 5온스(약 142g)를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FI 공인 영양사인 Rima Kleiner는 『업데이트된 2020-2025 지침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수산물을 이른 나이에 접해야 한다는 점이다.』

며 『아이에게 어렸을 때 수산물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것은 평생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Seafood Nutrition Partnership (SNP)은 이번 지침이 0~2세에 대한 영양상 필요사항을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SNP의 과학영양자문위원회(Scientific and Nutrition Advisory Council) 위원장인 Tom Brenna는 『우리는 6개월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수산물 섭취 권고 사항을 개발한 2020-2025 지침에 박수를 보낸다.』며 『수산물은 일생에 걸쳐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식품이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29일자

브렉시트 거래, 스페인의 포클랜드 조업에 막대한 손실 포클랜드 브렉시트 거래에서 제외, 유럽 수출 시 관세 부과

영국-EU가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포클랜드, 사우스조지아를 포함한 영국의 해외 영토들이 제외되었다.

포클랜드에서 오징어를 조업하는 스페인 트롤선들은 이러한 결과의 여파로 포클랜드에서의 조업이 차단될 수 있어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 외무부 Felipe Sola 장관은 브렉시트 거래에서 포클랜드가 제외된 것을 환영했으며 그가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EU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아르헨티나에서 포클

랜드를 이르는 말), 남극 대륙, 남대서양 섬들의 장관이자 원격지 섬들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Daniel Filmus 장관은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아르헨티나는 영국 해외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데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브렉시트 결정으로 포클랜드는 EU 국가로부터 더 이상 상업적, 세금 및 관세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포클랜드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유럽 시장에 수출 시 6~18%의 관세를 지불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EXPRESS, 2020년 12월 31일자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2년 연속 1,000억 크로네 이상 2020년 수량은 2% 증가한 270만톤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NSC)는 1월 6일 2020년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057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1조 2,000억 엔, 이하 크로네)였다고 발표했다. 수출 금액이 1,000억 크로네를 넘은 것은 2년 연속이다.

NSC의 레나테 라센 CEO는 『2020년은 이례적인 해이었지만 코로나 유행병이라는 최대의 난제를 극복했다』고 회상하며 『오드 에밀 잉게브리센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은 코로나 재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0억 크로네를 돌파했다. 훌륭하다』고 말했다.

금액은 전년에 비해 1% 감소, 수량은 2% 증가한 270만톤이었다.

이것은 하루에 3,700만 개, 즉 1분마다 2만 5,000개를 세계에 공급하는 양이라고 한다. 양식 어류와 천연 어류의 비율은 전년과 거의 같다. 금액 기준으로 70%, 수량 기준으로 44.9%를 양식 어류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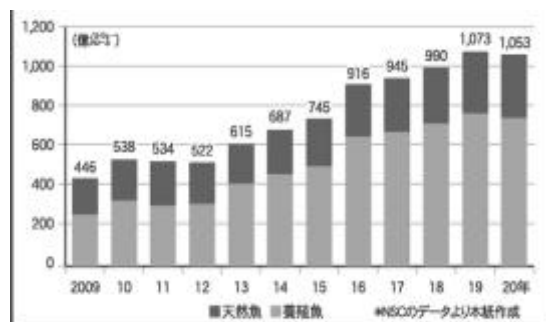
양식 어류의 수출액은 3% 감소한 742억 크로네(약 8,400억 엔). 이 중 연어 수출액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701억 크로네(약 8,000억 엔)이었다.

연어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 감소, 수량은 2% 증가한 110만톤이었다.

NSC의 해산물 애널리스트인 폴 안다루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소매용 제품 수요가 증가했다. 폴란드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가공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송어는 수량, 금액 모두 증가했고, 수출액은 5% 증가한 39억 크로네(약 440억 엔)이었다. 고등어는 어획 쿼터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가로 인해 16% 늘어난 50억 크로네(약 570억 엔)를 기록했다. 시세 하락이 있었지만 아시아 시장의 꾸준한 수요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량 증가 등에 따라 거래 문의가 강했다.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 추이>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1월 11일자



Norebo, 러시아 대규모 남극 크릴 어업 복귀 주도 크릴 조업 신조선 3~5척 건조 계획

러시아 수산청은 남극 크릴 어업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산청은 향후 3~5년 내에 남극 크릴 어업을 시작하려 한다.

지난해 말 러시아 어업 연구선인 Atlantis호는 17년 전에 남극 어업이 중단된 후 처음으로 남극 크릴 자원을 조사를 실시했다. 과학적 추정에 따르면 남극의 크릴 생물자원은 17년 전보다 증가했다.

수산청 Ilya Shestakov 청장은 『향후 4~5년 동안 크릴을 30만톤 정도 어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산청은 남극 조업을 위한 신조선이 3~5척 건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어업 대기업 3개사(Norebo Holding, Russian Fishery Company, V.Lenin Fishing Collective Farm)가 남극 크릴 어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Norebo사의 Sergey Sennikov 부회장은 『향후 5년 이내에 크릴 조업 신조선을 건조하고 시운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릴 제품 생산, 생산 제품의 마케팅, 물류, 선박 운영을 위한 공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Sennikov 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가 크릴을 조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약 15년 전에 Murmansk Trawl Fleet

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으로 남극 어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경험을 구현할 수 있다면 크릴 어업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계획과 해상에서의 실제 조업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수산업 컨설턴트인 Dmitry Ponyavin는 『러시아 기업들이 남극에서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Ponyavin는 『크릴 어업을 위해서는 전장 120m, 폭 23m 정도의 특수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1억 2,000만 유로(1억 4,700만 달러)가 필요하며 러시아에서 건조할 경우 비용이 25~30%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선도적 어업 기업들이 이미 신조선 건조를 위해 많은 대출을 많이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크릴 신조 금액은 매우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청은 특수 크릴 어선 건조 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연방 정부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28일자

노르웨이 기업, 세계 최대 대구 부화장 건설 계획 Gadus Group, Mowi 부화장 매입해 대구 부화장으로 전환

Gadus Group은 Mowi가 운영했던 어류 부화장을 매입했다. Gadus Group은 이 부지를 세계 최대의 대구 부화장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노르웨이 Trondelag 지역 Rodberg에 있다. Mowi가 2013년에 인수하기 전에

Atlantic Cod Farms와 Codfarmers가 운영했었다.

Gadus Group은 2021년말까지 1,200만~1,500만의 대구 치어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12월 18일자



대구 자원량, 알래스카만 전역에서 회복 점진적으로 증가 예상

2021년에 태평양 대구 어획량이 증가해 알래스카 연안 지역사회는 조금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이후 다년간의 수온 상승으로 급감한 대구 자원은 알래스카만 전역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알래스카 대구 조업은 대부분의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방 관할 수역(3~200마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고 알래스카주 관할 수역(~3마일)에서는 600만 파운드(2,722톤) 미만의 어획이 허용되었다.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연방 대구 어획 쿼터를 3,800만 파운드(16,329톤), 주 어획 쿼터를 1,170만 파운드(5,307톤)로 설정했다. 쿼터는 상승했지만 자원 관리 관련 담당자들은 여전히 자원량이 낮은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알래스카주 어업수령부(Department of fish and game)의 지역 저서어류 매니저인 Nat Nichols는 『주(state) 수역의 ‘어획 수준 가이드라인(GHLs)’은 작년 이후 2.5배 증가해 좋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자원이 풍부할 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2년 동안 예측 모델의 결과는 2020년이 최저치를 기록한 후 평균 자연 사망률과 평균 가입을 추정하면 2021년부터 자원이 회복할 것이라고 나왔다. 모델 및 기타 지표에서는 여전히 대구 개체수가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Nichols는 대구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올해의 어업 감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베링해 태평양 대구 쿼터는 21% 감소한 2억 4,500만 파운드(11만 1,130톤)이다. 명태는 3.5% 감소한 30억 파운드(136만 777톤)이다. 알래스카만 명태 쿼터는 2.4% 감소한 2억 5천만 파운드(11만 3,398톤)이다.

* 기사 출처: ANCHORAGE DAILY NEWS,
2020년 12월 23일자

EU 영국 어획 할당액 25% 감소 FTA 합의, 영국 수역 입어 5년 반 단계적 적용

유럽연합(EU)과 1월에 EU를 이탈한 영국은 현지 시간 12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합의했다. 난항을 겪고 있던 EU 각국 어선의 영국 수역으로의 입어 문제에서 양자 간 의견차가 좁혀졌던 것이 합의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영국이 더 양보해 결실을 보았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영국 수역에서의 EU 어획 할당량을 금액 기준으로 25% (1억 4,600만 파운드 상당) 삭감, 영국 어획 할당량으로 추가한다. 격변에 대한 완화 조치로서 새로운 합의에 대한 단계적인 이행 기간은 5년 반으로 했다.

영국은 1월 31일에 EU를 탈퇴했지만 그 후에도 12월말까지는 회원국과 거의 같은 취급을 받는 「이행 기간」으로 되어 있었다. 지난 3월 2일부터 EU와 영국은 양자의 미래에 대한 논의 협상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FTA 합의 등을 목표로 하여 왔었다.

이번 협상에서 영국은 자국 수역에서 EU에 대한 어획 할당량 80% 삭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EU는 프랑스 어업 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더 많은 어획량 등을 요구하며 반발, 어업 문제가 협상 장기화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8일자



아이슬란드 시샤모 어업 상한 2만톤 이상 정부 기관이 권고, 2021년 3년 연속 금어(禁漁) 회피

아이슬란드 정부 연구 기관은 12월 16일자로 2021년 아이슬란드 주변 해역의 시샤모 어획량 상한을 2만 1,800톤으로 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민관 합동으로 이달 상순에 실시한 자원 조사에서 산란 친어 자원량이 어업 해금 조건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어획량은 적지만 3년 연속 금어는 피하게 되었다. 아이슬란드 주변 해역의 금어 이전 2017년, 2018년의 총 허용 어획량(TAC)은 두 해 모두 30만톤 미만이었다. 이 연구 기관은 연초부터 다시 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 해역의 초기 TAC가 "이번 권고인 2만 1,800톤보다 늘 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초기 TAC가 설정된 시즌에는 어기 도중에 TAC가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유럽의 시샤모 어업은 이 해역 외에 바렌츠해에서 노르웨이 등이 조업한다.

2021년 바렌츠해의 시샤모 어업은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가 자원 상태가 나쁘다며 금어를 권고했다. 2021년은 3년 연속으로 금어가 이미 정해져 있다. 금어 이전인 2018년에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양국 생산 합계가 일본용 시샤모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했다. 주요 어업국인 두 나라에서 금어가 계속 되어 재고량은 「매우 타이트」 하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12월 21일자

EUROPÊCHE, 2021년 쿼터 충분하지 않아 EU 내년 1분기 쿼터 올해 총량의 25%로 설정

EU 어업인 단체인 Europêche에 따르면 EU 이사회의 규정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종의 쿼터 감소와 주요종에 적용되는 제한 조치들이 남아있어 유럽 어업인들에게 내년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대서양 및 북해의 경우 EU와 영국이 합의할 때까지 영국과 공유되지 않은 어종의 TAC만 설정할 수 있다.

EU 이사회는 과도기적 조치로 EU 어선이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2021년 1분기 쿼터를 올해 총 쿼터의 25% 정도 수준으로 설정했다.

고등어, 청대구, 전갱이와 같은 어종을 타겟으로 하는 주요 계절 어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25% 대신 65%를 적용해 EU 부어류 업계는 이를 환영

했다. 저서어류 업계도 이와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불행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북해 대구(cod) 어업, 켈트해의 대구류(gadoid species) 어업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른 유럽 해역에서 넙치(plaice), 노르웨이 랍스터, 민대구, 가자미(sole), 아귀, 명태, 둥근코 민태, 참돔, 검은 갈치(black scabbardfish)와 몇몇 다른 저서어류의 쿼터는 감소했다.

Europêche의 Daniel Voces 전무이사는 「올해 불확실한 상황과 쿼터 삭감을 감안하면 위기를 맞은 어업인을 위해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12월 18일자



밤 바다

이 해 인

아무도 몰래 멍든 가슴을
어둠에 풀어 놓고
바다는 이제사 울고 있다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한 이들을 위해
살아서도 유서를 쓰려는 이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의 말도 뱉을 수 없는
메마른 제 심장을 실연당한 젊음을
소리내어 울고 있다

피 냄새 석유 냄새 엉겨붙은 세상에
시퍼런 꿈을 팔다
목이 쉰 바다

귀먹은 자들이 귀찮아 내다버린
십자가를 혼자서 지고
새벽을 낳고 싶은 욕망에
신음하고 있다

진통 겪는 産母(산모)처럼 오열을 토하며
승리를 기다리는
어둠의 바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革命(혁명)의 내일을 위해
바다는 엎디어 칼을 갈고 있다





해양수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1. 11.~2. 5.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 목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시 상향 나서

10만원→ 2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였다.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 등 담은 선원법 시행령 시행

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엔 시행령도 개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설정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었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

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멸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해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 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2020년 수산물 수출 2조 5천억원, 김은 역대 최고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감소 후 4분기부터 회복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25억 1천만 달러)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로 김을 제외한 참치, 전복, 넙치 등 외식용품목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12.9%), 어묵(2.0%)을 비롯해 김 스낵과 같은 조제품(9.5%), 참치캔 등 통조림(10.2%) 등 가공품의 수출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40%에 불과하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p 오른 약 45%까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은 전년보다 13% 이상 감소해 수산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시식행사 등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가정용 가공품 수출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국수산물(K-Seafood)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통해 수산식품을 전시해 해외 구매자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수출기업(403개사)과 해외 수입기업(792개사)을 1대 1로 연결하는 화상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온라인 전환을 통해 총 24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51억원)을 활용, 아마존, 타오바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물 코너를 입점시키고,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인플루언서)를 통한 홈쇼핑, 생중계 방송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예산 전용 등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24억 원)으로 김, 참치 통조림, 어묵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가공품을 중심으로 수출 마케팅 사업을 집중 전개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9월에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는 등 반등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매월 수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약 2억 3천 5백만 달러로 2020년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에도 환율 하락, 코로나19 확산 지속,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수출에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회복을 목표로 비대면 수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 지원 등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개발, 보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23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이뤄낸 점은 매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춰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가공품 개발, 수출을 촉진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멸치, 콩치젓갈 널리 알린 김현목 씨 등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후계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하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 콩치 젓갈의 대중화에 기여한 김현

목 씨(47, 대상)를 비롯해 새꼬막 가공 기술을 개발한 강성원 씨(43, 최우수상), 간편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이현진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상용화에 앞장선 조홍주 씨(36, 4등) 등 4명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되며, 4명의 수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 된다.

김정례 주무관,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총회 의장 연임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업 주요 역할 기대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15일에 열린 제17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총회 의장으로 연임('21~'22)되었다고 밝혔다.

WCPFC는 다랑어 등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한국, 미국, 일본, 미크로네시아 등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55%인 299만톤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WCPFC는 세계 최대 다랑어 생산 수역 및 우리나라 다랑어 주요 어장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이다.

김 주무관은 2010년부터 한국 대표단으로서 WCPFC 회의에 참석해 왔으며, 2018년도 제15차 총회에서 아시아권 국가 최초이자 최연소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2021도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은 올해와 동일한 1만 3,942톤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세계 최대 참치 생산 수역인 중서부태평양 수역 관리 기구의 의장으로 한국인이 연임됨에 따라 국제사회 기여는 물론, 국제 수산 규범 선도국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부장	총무, 인사
		박설진 과장	회계경리, 운영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사무관리, 차량운영
	회원지원부	이성재 이사	총괄
		소기동 부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이사	총괄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참치선망·연승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북양, 콩치
		최동환 주임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OFIS, 해외투자, 행정	지원팀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837		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e.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j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9호

발행 : 2021년 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